

2009 경희대학교 연례보고서

# 목련리포트

경희의 미래, 인류의 미래

TOWARD  
GLOBAL  
EMINENCE

경희대학교



2009 경희대학교 연례보고서

2009년 5월  
경희대학교 총장실



## 목차

### 발간사 7

### 2009 경희 60주년 : 경희의 미래, 인류의 미래 8

## I. 학문과 평화: 제2 도약의 원년

### 1. 교육 : 새로운 도약을 위한 토대

2009학년도 편제 개편 14<sup>1</sup> 교양교육 강화를 위한 학부대학 운영 14<sup>1</sup> 국제캠퍼스의 새 브랜드, 몰입형 기숙교육 프로그램 16<sup>1</sup> 교양교육과정 개편 16<sup>1</sup> 로스쿨 첫 신입생 선발, 경쟁률 9 대 1 17<sup>1</sup> '입학사정관제도' 도입 18<sup>1</sup> '네오르네상스 전형' 시행 18<sup>1</sup> 대학 자체 특성화 지원 사업, 9개 팀 선정 19<sup>1</sup> 교수 학습 지원 체계 강화 19<sup>1</sup> 5대 정책 중점과제, '교육 부문' 연구 시행 20

### 2. 연구 : 연구 중심 대학 기반 마련

'창조21' 프로젝트에 총 28개 과제 접수 22<sup>1</sup> 의생명과학원(가칭) 설립 22<sup>1</sup> 연구 지원 제도 강화 23<sup>1</sup> 교원 인사 관련 규정 개선 23<sup>1</sup> Search & Recruit Committee, 우수 교원 상시 초빙 24<sup>1</sup> 승진 및 업적 평가제 개선 26<sup>1</sup> 활기 띠는 산학연 협력사업 지원 26<sup>1</sup> 5대 정책 중점과제, '연구 부문' 연구 시행 27

### 3. 실천 : 대학의 또 다른 미래, 사회적 책임

Peace BAR 페스티벌, UN 세계평화의 날 기념 국제학술회의 개최 28<sup>1</sup> UN 평화공원 및 글로벌 NGO 콤플렉스 29<sup>1</sup> '아시아 포럼': 아시아 지역의 초국가적 문제 조명 29<sup>1</sup> 인문학, 사회적 약자를 찾아가다 31<sup>1</sup> 나눔과 기여의 지구적 실천-Kyung Hee Global Praxis 60 32<sup>1</sup> Kyung Hee Volunteer Network, 지구적 공헌 모델 모색 32<sup>1</sup> 재학생 해외 봉사단, 러시아·베트남에 파견 33<sup>1</sup> '의·과학 경희'의 나눔과 기여, 의료봉사 33<sup>1</sup> 국제 NGO·세계적 연구기관 인턴십 프로그램 34<sup>1</sup> 경희-씨티그룹 NGO 인턴십, 제3기 프로그램 '성황' 36<sup>1</sup> 박물관과 함께하는 신나는 자연 탐험 36

### 4. 의·과학(Medical Science) 경희

경희의료원, 진료 인프라 개선 38<sup>1</sup> 신개념 종합의료기관, 동서신의학병원 38<sup>1</sup> '제3 의료원' 설립 예정 39

## II. 세계와 경희 : 세계시민포럼(WCF) 출범

경희가 만든 지구협력체, WCF 출범 42<sup>1</sup> WCF와 함께 열리는 세계시민청년포럼(WCYF) 42<sup>1</sup> Global Collaborative 2008 43<sup>1</sup> 지구적 차원의 신개념 교육기관, 글로벌 스튜디오 네트워크(GSN) 43<sup>1</sup> 새로운 국제화 프로그램, 복수학위 제도 44<sup>1</sup> 글로벌 인재의 산실, '공학교육 국제 인증' 획득 46<sup>1</sup> 외국인 학생, 해외 파견 학생 크게 증가 46<sup>1</sup> 외국인 지원 센터(CISS) 설립 47<sup>1</sup> 5대 정책 중점과제 '국제화 부문' 연구 시행 47

## III. 창조와 도약 : 경희정신·경희대·경희인

### 1. 행정 부문 개선

자율운영 지원 인프라 구축 50<sup>1</sup> 대학(원) 자율운영, 2009년 전면 실시 50<sup>1</sup> 의료·의학계열 거버넌스, 세계적 통합 시스템 지향 50<sup>1</sup> 평가와 보상, 지원 체계의 합리화 51<sup>1</sup> 대학 자체 평가(O & P Review) 모델 구축 52<sup>1</sup> 구성원 데일리 메일링 서비스 52<sup>1</sup> 5대 정책 중점과제, '전문 행정 부문' 연구 시행 53

### 2. 복지 부문 개선

직장 보육시설, '경희어린이집' 설립 54<sup>1</sup> 교직원 보건복지 프로그램 확대 실시 54<sup>1</sup> 5대 정책 중점과제 '복지 부문' 연구 시행 55

### 3. 연구·교육 인프라

캠퍼스 마스터플랜 1) 서울캠퍼스 : 과거와 미래의 조화 56<sup>1</sup> 2) 국제캠퍼스 : '글로벌 경희'의 랜드마크 56<sup>1</sup> 서울과 국제캠퍼스에 '건고 싶은 거리' 동시 조성 58<sup>1</sup> '60주년 기념 광장' 조성 58<sup>1</sup> 학생생활지원센터(가칭) 설립 58<sup>1</sup> 연구지원센터(가칭), 원스톱 방식으로 운영 59<sup>1</sup> 경영대, '오비스 홀' 시대 : '세계 100대 경영대' 비전 선포 59

### 4. 대학문화

'문화세계 창조'의 모태, 창학기념관 건립 60<sup>1</sup> 자긍심·대외 이미지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 60<sup>1</sup> 주요 회의록 공개하는 '경희커뮤니케이션 21' 60<sup>1</sup> '우리의 경희! 내가 디자인한다' : 정책 제안방 신설 60<sup>1</sup> 학교 표정 바꾸는 클린 캠퍼스 캠페인 60<sup>1</sup> 홈페이지 개편, 60주년·제 2 도약 이미지 강화 62<sup>1</sup> 경희대 UI 개편 62<sup>1</sup> 경희 뉴스레터, 매거진 창간 63<sup>1</sup> 출판국에서 출판문화원으로 : 대학 브랜드화의 '컨트롤 타워' 63

## 5. 전진하는 경희

2008 <중앙일보> 대학평가, 경희대 10위 64<sup>1</sup> 국가고객만족도 평가, 경희대·경희의료원 나란히 3위 64<sup>1</sup> 대교협 학문 분야별 평가, 한의학·물리학·경제학 모두 '최우수' 66<sup>1</sup> 경희의료원, 정부 주관 의료기관 평가에서 '우수' 66<sup>1</sup> 경희대 교수진, 활발한 학술 활동 66<sup>1</sup> 7개 연구소 학술지, 학진 등재 후보지 선정 68<sup>1</sup> 의학계열 연구자 특별지원사업, "앞으로 논문 100편 나와" 68<sup>1</sup> 대외 연구비 수주 확대 69<sup>1</sup> 경희대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설립 69<sup>1</sup> WCU 사업에 5개 과제 선정 70<sup>1</sup> 발전기금 모금 활성화, 도약 기반 마련 70<sup>1</sup> 총동문회, 장학금 8천4백만 원 지급 71<sup>1</sup> UNESCO 사무총장 명예박사 학위 수여 71<sup>1</sup> 세계적 인명사전에 경희대 교수 7명 등재 71<sup>1</sup> 정경대 정한나 양, 학부 졸업생 최초로 UN 정식 채용 72<sup>1</sup> 치의학·의학전문대학원, 간호과학대, 국가시험 100% 합격 73<sup>1</sup> 베이징 올림픽 태권도 금메달, 체육부 맹활약 73

## 사자와 목련

총장 365일 76

통계로 본 경희 2008 78

경희 조직도 79



## 상상하고 창조하는 60주년 또 다른 도약을 향하여



개교 60주년을 맞았습니다. 1949년 설립 이래 경희는 지난 60년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왔습니다. '문화세계의 창조'를 이루고, '학문과 평화'의 전통을 쌓아온 경희는 한국의 교육사에, 인류의 문명사에 크고 작은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이제 경희는 어제, 오늘의 성취와 함께 또 다른 내일을 향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연구, 봉사과 실천 분야에서 21세기 학술기관의 보다 나은 미래를 지향하며 새로운 창조의 길을 열고자 합니다.

60주년을 맞아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경희인 모두의 상상의 나라를 펼쳐게 합니다. 또 다른 도약을 위한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며, 새 세기, 새 대학을 만들어갈 열정과 포부를 요청합니다. 학문의 깊이를 더하는 대학, 대학의 실천적 책무를 다하는 대학, 사회를 호흡하고 세계와 소통하는 대학, 평화롭고 풍요로운 인류문명에 기여하는 대학, 이 모두 경희인이 60주년과 함께 공유해야 할 창조의 공간입니다.

이처럼 상상하고 창조하는 60주년은 우리 모두의 꿈이자 희망입니다. 이 꿈과 희망을 통해 자신과 사회, 나라와 인류사회의 공동 번영이 구현되었으면 합니다. 경희의 전통인 학문과 평화, 인류 복리 증진을 이루며, 대학 발전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경희대학교 연례보고서 《목련리포트》가 올해로 두 번째 출간을 맞았습니다. 매년 추진한 정책과 제도, 행사와 소식을 전하는 《목련리포트》가 개교 60주년을 맞아 경희인 모두의 소망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2009년 5월

경희대학교 총장 조인원

# 2009 경희 60주년

## 경희의 미래, 인류의 미래

학문의 미래를 선도하고 인류 평화를 추구해온 경희대학교가 2009년 개교 60주년을 맞았습니다. 경희대의 전 구성원은 지난 60년간 쌓아온 빛나는 역사와 전통 위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문을 힘차게 열어젖힙니다. 본관 석조전 출입구 위에 새겨놓은 '학문과 양심의 자유'가 21세기 학문적 권위의 재건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2009년은 세계적 명문 사학으로 도약하는 경희의 원년입니다. 새로운 60년, 창조하는 60년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 개교 60주년과 대학의 새로운 역할

2009년, 개교 60주년은 경희대가 제2의 도약기로 진입하는 첫해입니다. 새로운 학문과 평화로운 인류사회를 지향해온 경희가 21세기 대학과 인류사회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려는 것입니다.

‘문화세계의 창조’를 창학 이념으로 설정한 경희는 지난 60년간 연구·교육·실천의 창조적 융합을 추구하며 서울과 국제 그리고 광릉 캠퍼스에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학문의 요람을 구축해왔습니다. 인문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의학, 예체능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유기적 발전을 도모하고, 동서의학의 창조적 만남을 선도하는 제3 의학을 구현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희는 대학의 또 다른 사명인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국내외적으로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왔습니다.

개교 60주년을 맞아 경희는 세계적인 명문 사학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학문적 권위를 회복하고, 문명사적 전환의 주제로 보다 나은 인류사회 건설을 위한 보편 가치를 창출할 것입니다.

경희의 미래가 대학의 미래이고, 대학의 미래가 인류의 미래입니다.

## 60주년 기념사업: 변화하고, 도전하고, 창조합니다

경희대의 새로운 60년은 새로운 문명을 창출하는 60년입니다. 인간과 학문, 학문과 현실의 안팎을 성찰하고, 인류와 지구의 미래를 전망하는 문명사적 전환점인 것입니다.

경희대는 21세기 대학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위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미 실천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명실상부한 ‘학문과 평화의 전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세 가지 목표—‘학문적 권위의 재건’, ‘소통의 학문체계’, ‘화합과 창조의 미래사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희는 캠퍼스의 규모나 구성원의 총량에 있지 않습니다. 경희가 창의적 연구·교육의 주체이자 지구적 실천의 중심으로 역할을 다할 때, 학문-대학과 평화-지구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세계적 명문 사학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60주년 기념사업은 경희정신을 되새기며, 이를 다시 미래에 투사하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지난 60년간 이룩해온 성취는 경희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동력입니다. 60주년은 우리가 스스로 변화하고, 도전하고, 창조하는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60주년 기념사업은 교직원, 학생, 학부모, 동문 등 경희 전 구성원의 상상력과 열정을 모아 새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 새로운 60년: 경희에서 세계로, 미래로

### 공식 슬로건, 엠블럼 확정

60주년위원회는 개교 60주년의 의미와 비전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공식 슬로건과 엠블럼을 정했습니다. 60주년 기념 슬로건과 엠블럼은, 지난 60년간 쌓아온 전통과 성취를 기반으로 새로운 60년을 향해 출발하는 경희의 지향점이자 정신적 랜드마크입니다.

공식 슬로건은 '경희의 미래, 인류의 미래'이고 영문으로는 'Towards Global Eminence'로 표기합니다. 이 슬로건은 지난해부터 학교 공식 문건에 사용했고, 경희의 설립 정신, "문화세계의 창조"에 바탕하여 인류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는 경희의 소명과 정체성을 압축하고 있습니다.

경희의 미래는 대학의 미래입니다. 대학의 미래는 '학문과 평화'의 미래로 구현됩니다. 모든 진정한 학문은 보다 나은 인류사회를 모색하는 '미래학'입니다. 학문은 평화를 지향하고, 평화는 학문을 필요로 합니다. 학문-대학과 평화-지구는 이론과 현실, 과거와 미래, 자아와 타자처럼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경희가 학문과 평화의 전당으로 거듭날 때, 인류의 미래는 한층 밝아집니다. 경희의 미래가 인류의 미래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엠블럼은 경희의 상징물인 '웃는 사자상'을 모티브로 삼아, 박애정신과 포용의 힘으로 인류 평화에 이바지하는 경희 지식인상을 시각화한 것입니다. 전방(미래)을 주시하며 질주하는 사자를 형상화한 60주년 엠블럼은 60년의 역사와 전통 위에 21세기 명문 사학으로 도약하는 경희의 힘찬 기상을 상징합니다.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경희인의 미래 비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 교책사업, 국제공헌, 문화예술 등 다양하게 전개

개교 60주년 사업은 60주년위원회가 설정한 기초와 비전에 입각하여 교책사업과 기념사업으로 구분되어 추진됩니다. 개교 60주년에 즈음하여 '창조21' 프로젝트, 캠퍼스 마스터플랜, 학교 발전 5개 프로젝트, 글로벌 스튜디오, 걷고 싶은 거리, 발전기금 모금 캠페인 등 교책사업이 실행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창조21'은 2009년 5월 최종 선정자를 발표하고, 글로벌 스튜디오가 서울과 국제캠퍼스에서 착공식을 갖습니다. 교육 수월성·연구경쟁력 강화·복지·국제화·전문·행정 등 학교 발전을 위한 5개 프로젝트도 연구와 의견 수렴을 마치고 시행에 들어갑니다. 캠퍼스 마스터플랜과 연계되어, 서울과 국제캠퍼스에 보행자 중심의 걷고 싶은 거리가 조성되어 학교 환경이 크게 개선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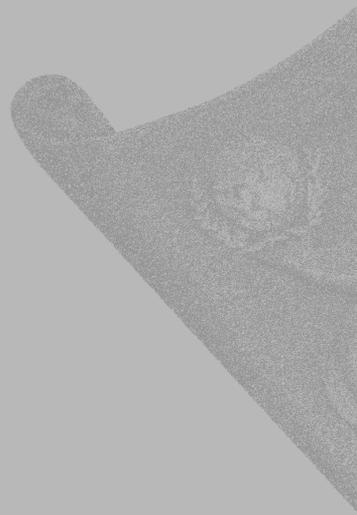
60주년 기념사업은 교사 편찬, 세계시민포럼(WCF) 및 세계시민청년포럼(WCYF) 창립, 국제학술회의, 문화예술 행사, 국제 공헌과 참여, 출판 등으로 이어지면서 경희 60년의 의미와 비전을 대내외에 널리 알릴 것입니다. 60주년 기념식은 2009년 5월 6일 경희대에서 개최됩니다. 기념식을 전후로 WCF와 WCYF 창립식 및 국제학술대회가 2009년 5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COEX와 경희대에서 개최됩니다.

2009년 3월부터 12월까지 경희대에서는 'Kyung Hee Global Praxis 60'이 열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눔과 기여, 즉 대학의 사회적 실천의 범위와 성격, 그리고 지향점을 새롭게 제시할 것입니다. 기념 공연은 5월 8일 세계적 테너 호세 카레라스의 자선 공연에 이어, 8월 21일부터 9월 1일까지 뮤지컬 '한여름 밤의 꿈'이 공연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한국 문학을 빛낸 경희대 출신 문인들의 작품집, 세계 최초로 티베트 무인구 탐험에 성공한 박철암 교수의 다큐멘터리가 60주년 기념으로 출간됩니다.



# 학문과 평화

제 2 도약의 원년



교육과 연구, 실천 분야에서 2008년은 제2도약을 위한 토대를 다진 한 해였습니다. '학문적 권위'를 재건하고, '소통의 학문체계'를 열어가는 동시에 '융합과 창조'의 미래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들이 하나하나 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 개교 60주년을 맞이하여 이 같은 변화와 도전은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 교육: 새로운 도약을 위한 토대

### 2009학년도 편제 개편



기획위원회 산하 제도발전전문위원회는 지난해 봄부터 각 대학 교수 간담회와 학장 간담회를 거쳐, 지난해 6월 교수와 학생, 직원 등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진 다음, 2009학년도 편제를 개편하고 일부 정원을 조정했습니다.

서울캠퍼스는 법과대학(정원 230명)을 폐지하고 약학대학 약학과(40명)의 모집을 중단하는 대신, 법학전문대학원(60명)과 자율전공학과(187명)를 신설하고, 경영대학 경영학부와 사회과학부, 관광학부, 생활과학부 등에 38명의 정원을 배분했습니다.

국제캠퍼스는 그동안 테크노공학대학, 환경응용화학대학, 토목건축대학으로 운영되어오던 공학계열의 단과대학을 재편하여 공과대학을 부활시켰습니다. 공과대학은 기초학문을 활성화하면서 교육 수월성을 제고하고 연구 역량을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과대학은 구성원들의 학문적 자긍심을 드높이는 한편 공과대학의 대외 이미지를 끌어올릴 것입니다.

자율전공학과는 21세기 지식사회가 요구하는 융합적 사고 능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신설했습니다. 자율전공이란 특정 전공에 소속되지 않고 인문학, 사회과학, 기초과학, 융합과학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학생의 적성에 따라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율전공은 창의적·자율적·통합적 능력을 강조하거나, 경희가 그동안 축적해온 글로벌 비즈니스, 글로벌 리더, 컨버전스 사이언스 전공 등이 자율전공 학생들에게 폭넓고 깊이 있는 학문의 세계를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 교양교육 강화를 위한 학부대학 운영



일찍이 과학문명과 정신문화의 조화, 사회 민주화와 함께 국제화와 세계화를 지향하는 '문화세계의 창조'를 창학 이념으로 설정한 경희는, 밖으로는 문명사적 대전환에 적극 대처하면서 안으로는 창학 이념을 새롭게 구현하기 위해 학부대학을 신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부대학을 통해 경희가 추구하는 전문교양인은 융합적 시야를 가진 교양인(Neo-Renaissance), 학문적 수월성을 발휘하는 전문인(Excellence), 평화세계 구현에 기여하는 박애인(Eminence), 민주적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Leadership) 등 네 가지 자질을 갖춘 새로운 인간형입니다.

지난 한 해, 학부대학은 자율전공학과와 몰입형 기숙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집중했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바 있는 자율전공학과 신입생 110명은 22명을 1개 반으로 하는 담임제도(지도교수 5명)를 통해 체계적인 학사지도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다른 학부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기초교양, 통합교양 및 GCC(Global, Competent, Creative)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동시에 지도교수, 멘토와의 전공 탐색 학점을 추가로 수강합니다.

자율전공학과는 의학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으며, 지난해 신입생 중에서 30명을 동서의과학부에 우선 진입하게 함으로써 성적 우수자를 선발할 수 있었습니다. 2009년에는 정원을 90명으로 줄여 보다 수준 높은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 국제캠퍼스의 새 브랜드 몰입형 기숙교육 프로그램



원거리 학생이나 체육부, 고시반 학생 등을 수용하는 단순한 생활 공동체였던 대학 기숙사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국제캠퍼스가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몰입형 기숙교육 프로그램은 교양 기초교육을 다지고 창의적이고 글로벌한 마인드를 가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개발한 전인 교육 공간, 즉 '경희 학습 생활 공동체'입니다.

국제캠퍼스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숙교육 프로그램은 '지나친 이기주의', '도덕적 해이', '반사회적 감수성' 등에 길들여진 대학 신입생을 더불어 사는 사회인,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지성인, 자아를 실현하고 타자를 배려하는 리더십을 갖춘 건강한 인간으로 거듭나게 하려는 새로운 교육 방식입니다.

기숙사는 1~2개 층을 기준으로 모두 17개의 기숙 캠퍼스로 구분되는데, 이 기숙 캠퍼스가 학습 및 생활 공동체의 기본 단위입니다. 신입생들은 기숙 지도교수, 기숙 멘토, 일반 멘토로부터 대학생활 전반과 관련된 상담과 조언을 받으며 '경희 생활 학습 공동체'의 일원으로 활동합니다.

기숙교육 프로그램은 크게 3가지(GCC: Global, Competent, Creative)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Global 영역은 영어 및 외국어 교육과 리더십 함양 교육에 중점을 둡니다. Competent 영역에서는 학습법, 기초학력 증진, 취업 역량 강화, 멘토링 시스템, 기타 자기 계발 프로그램 등이 운영됩니다. Creative 영역에서는 온·오프라인 글쓰기, 교양 독서, 독후감 대회 같은 글쓰기 프로그램을 비롯해 문화·예술 강좌와 감상회, 체육 활동 등이 펼쳐집니다.

기숙교육 프로그램은 경희대의 새로운 브랜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리더십 프로그램과 봉사활동은 학생들의 감성지수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멘토링 제도와 학습법 프로그램, 자기 계발 프로그램 등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Creative 영역으로 영화, 연극, 음악회 등으로 구성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오전 오후에 진행되는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이 신입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신입생들은 몰입형 기숙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의 4분의 3이 2009학년도에도 기숙사에 거주하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 교양교육과정 개편



통섭과목 신설을 통해 교양교육과정이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초학제적인 관심과 창의적 통합 능력을 지닌 멀티미디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존의 분과학문의 경계를 뛰어넘어 다양한 지식과 가치를 포괄할 수 있도록 하는 21세기형 교양교육이 뿌리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통섭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신규 통섭과목은 공모를 통해 20개를 선정하려 했는데, 접수된 연구과제 수준이 높아 5개 과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지난해 선정된 25개(국제캠퍼스 13개)의 통섭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화, 역사, 담론' (사학과 박진빈) '역사 속의 과학자 : 과학혁명과 역사의 전환점들' (물리학과 김낙



우) '과학, 환경, 사회 및 지구 온난화' (화학과 주동준) '우리 문화유전자 코드 읽기' (교양학부 김희찬) '한국 차 문화의 과학과 미학' (세무회계학과 이근수 외) '문명과 수학' (수학과 박창훈) '디지털 사회의 문화 : 철학과 종교 그리고 법' (법학과 정완) '영화 속 철학 이야기' (철학과 이상임) '영화로 보는 의생명과학' (의과대 서영록) '도시와 인간의 삶 : 대중문화, 영상과 도시공간의 시학 그리고 정치학' (언론정보 이기형) '인간-컴퓨터 중심세계' '마음의 지도 : 영화 속의 심리학과 인지과학' (교양학부 김성아) '과학예술문화의 만남' (기계공학 오환섭) '현대사회와 과학' (화학 및 신소재과학 이영식) '인문학과 문화콘텐츠' (프랑스어 김기국) '생물, 영원한 블루오션' (환경학 여민경) '미디어아트와 문화' (학부대학 백수희) '인간과 생활 속의 로봇' (교양학부 이승관) '숲의 치유' (생태시스템공학 김영채) '컴퓨터와 생활 속의 수학' (교양학부 배재형·최진혁) '수와 문명' (응용수학 김진용) '문화와 학습공학' (학부대학 김영노) '지식사회와 창조' (학부대학 김민전) '동양사상과 기술문명' (학부대학 신창호) '세계평화와 지역경제통합' (국제대학원 신상협).

## 로스쿨 첫 신입생 선발 경쟁률 9 대 1

2009년 3월 개원하는 경희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지난해 11월 첫 입시 원서 접수 결과 8.92 대 1의 경쟁률을 보여 전국 평균 6.84 대 1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경희 로스쿨은 가군에서 30명(일반전형 26, 특별전형 4), 나군에서 30명(일반전형) 등 총 60명을 선발하는데, 총 5백35명이 지원해, 서강대의 9.85 대 1, 중앙대의 9.32 대 1, 한국외국어대의 8.98 대 1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경희대 로스쿨은 1960년대부터 경희가 추구해온 국제화·세계화 전통을 이어받아 글로벌 기업 법무 전문가를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인적 가치관과 건전한 직업 윤리관을 바탕으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적 법률 지식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고, 국제화 시대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우수한 법률가를 양성하려는 것입니다.

경희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기업 법무 전문 교육기관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00년 초부터 꾸준히 준비해왔습니다. 현재 이론교수 22명, 실무교수 9명 등 총 31명의 전임교수를 확보했으며, 김&장 법률사무소, 법제처와 한국소비자원 등 1백5개의 외부기관과 교류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하와이대, 독일의 트리어대, 중국의 정법대, 일본의 중앙대 등 9개 해외 교육기관과도 특별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특성화 목표인 '글로벌 기업 법무 전문가 양성'을 위해 기업 법무와 연계된 중점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실무 쟁점과 사례 해결 중심의 교육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일반 법무 프로그램, 기업 법무 프로그램, 공공 법무 프로그램, 글로벌 법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특히 글로벌 법무 프로그램에서는 글로벌 통상 법무, 글로벌 금융 법무, 글로벌 기업조세 법무, 글로벌 IT & IP 등 4개의 트랙으로 구분하고 각 트랙별로 기초과목 2개와 심화과목 1개씩을 개설했습니다.

## ‘입학사정관제도’ 도입



지난해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115명의 우수한 학생을 선발했습니다(네오르네상스 전형 19명, 사회 배려 대상자 전형 96명). 입학사정관제도란 대학의 입학관리팀과 별도로 운영되는 입학사정관팀이 학생을 선발하는 것으로, 2004년 발표된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에 근거해 설치되었습니다.

입학사정관제는 기존의 시험 성적 위주의 학생 선발 방식을 탈피하여, 서류와 면접(논술)을 통해 학생의 잠재력과 적성, 소질 등 다양한 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선진적인 선발 방식입니다. 미국에서는 1922년 다트머스대학이 처음 도입한 이후 입학사정관제가 보편화되어 있고, 일본에서도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의 역할은 우수 학생을 뽑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입학 후 학생을 관리해야 하고, 국내외 입시정책과 제도를 연구하여 보다 나은 입학 제도를 개발해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2007년 8월부터 5년간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는데, 3차년도인 2009년 현재 경희대를 비롯해 40개 시범대학에서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희대는 11명의 상임 입학사정관(서울 6명, 국제 5명)을 이미 채용했고, 비상임 입학사정관 26명을 임명해 인적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2010학년도에는 입학사정관제를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오르네상스와 사회 배려 대상자 이외에 ‘국제화’와 ‘과학인재 특기자’ 전형을 신설해 4개 전형에서 모두 434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 ‘네오르네상스 전형’ 시행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인간 중심 사상을 바탕으로 자유와 평등, 평화와 공영의 인류 보편 가치를 지향하는 경희의 창학 이념에 부합하고 창의성과 잠재력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신설한 것입니다. 앞서도 밝혔듯이,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입학사정관제도를 통해 우수 학생을 평가하는 새로운 선발 방식입니다.

2009학년도에 첫선을 보인 네오르네상스 전형에는 20명 모집에 241명이 지원해 12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들이 제출한 서류를 입학사정관이 평가해 60명을 1차 선발했고, 이들에 대해 면접고사(40%)와 1단계 성적(60%)을 합산해 최종 합격자 19명을 선발했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학생 중에는 전교 총학생회장이면서 710시간의 봉사활동을 하고 스피치 토론대회에서 국회의장상, 장관상을 여러 차례 수상하는 등 서번트 리더십을 갖춘 학생이 있는가 하면, 만해백일장, 종합대 주최 각종 경시대회 등에서 탁월한 실적을 보인 학생도 있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인데 고교 입학 수석에다 현재에도 전교 수석인 학생, 학생부 전 과목 석차 등급이 1.5 이내로 성적이 뛰어난 학생 등 인성과 학습 능력을 두루 갖춘 다양한 학생을 가려 뽑았습니다.

교사의 추천을 통해 서류 평가와 면접고사만으로 선발하는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2010학년도에 모집 인원을 50명으로 확대하고, 리더십이 탁월한 학생을 선발하는 영예학생형(30명)과 특정 분야에서 남다른 재능을 보유한 인재를 선발하는 창의형(20명)으로 구분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 대학 자체 특성화 지원 사업 9개 팀 선정

3년차를 맞는 대학 자체 특성화 지원 사업에 9개 팀이 선정되어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지원 사업은 기초과학 및 지식 기반 서비스, 신산업 창출 기반 등 미래를 선도하는 핵심 분야를 집중 육성하여, 세계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시행한 것입니다.

2008학년도에 선정된 팀은 서비스무역 특성화 사업팀(무역학부), 물리학과 경쟁력 강화 사업팀(물리학과) 외 2개 신규 팀과, 경제학부 금융경제 특성화 사업팀(경제학부), 한의과학 국제경쟁력 강화 사업팀(한의과대학) 외 3개 계속 팀 등 모두 9개 팀으로, 총 7억 8천5백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06학년도부터 시작된 이 지원 사업은 2008학년도에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효과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대학 자체 특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쌓은 경쟁력은 앞으로 국책 사업 공모에서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는 '세계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WCU) 육성 사업'에 경희대에서 5개 팀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경희대가 시행해온 대학 자체 특성화 지원 사업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 교수 학습 지원 체계 강화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은 교육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쟁력 있는 교육 방법 및 전략을 개발하는 한편, 21세기형 자기주도적 학습자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교수학습지원센터는 지난해 교수법, 영어강의, e-Learning, 재학생 학습 능력 향상 등의 분야에서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 티칭, 팀 중심 교수법, 유머 커뮤니케이션, 우수 강의 사례 발표 등 교수법 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비롯하여, 영어 강의 지원을 위한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위한 학습 전략 워크숍과 학습 지원 프로그램, 오픈 코스웨어(Open Course Ware) 운영 지원 및 교육자료 개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면서 교육의 질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습니다. 재학생의 학습 능력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전개되었습니다. 논리적 사고와 말하기(손석희 교수), 당당하게 발표하고 토론하기(정관용 교수), 마음을 사로잡는 파워스피치(김은성 아나운서) 등으로 구성된 학습법 특강을 마련했는가 하면, 학습 전략 워크숍 및 학습 포트폴리오를 개발했습니다. 또한 경희 튜터링(68팀 182명)과 전공별 스터디 그룹(53팀 259명) 등 학습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수학생 학습법과 추천 강의 사례를 담은 ‘배움의 즐거움’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 5대 정책 중점과제 ‘교육 부문’ 연구 시행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는 대학의 경쟁력은 교육의 수월성, 즉 ‘얼마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느냐’ 하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교육 수월성은 연구력 강화, 사회적 실천과 더불어 세계적 명문 사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이룩해야 하는 핵심 과제 중 하나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교육 수월성 제고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여 7월 연구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교육수월성위원회(위원장: 총장)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등 국내 대학과 하버드대, 영국 교육능력부,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들을 벤치마킹하는 한편, 성균관대의 교육력을 비교 분석하고 학생과 교수, 학부모에 대한 설문 조사를 거쳐, 원활한 소통에 기반한 교수·학습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경희대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학 차원에서 교육 개선을 위한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며, 강사·강의평가·교육과정 등 교육의 질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상설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교수의 교육 개선 노력에 대한 지원과 보상, 강의 자료와 정보를 활발하게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학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학습 정보 제공, 강좌당 수강생 수의 적절한 조정, 강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우수 강사진 확보, 교육과정 개선을 통한 다양한 과목 개설,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배양 등이 요청되었습니다.

연구 보고서는 우선 교육수월성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우수 강의 교수에 대한 시상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수업 자료·교과목·교육방법을 개발하는 교육개발지원제도를 신설하며, 홈페이지를 활용한 강의 자료와 정보 제공, 오픈 코스웨어를 통한 교수 강의 내용의 교내의 공개, User Created Education 방식에 의한 학생 참여형 강의 개발, 글로벌 스튜디오 네트워크를 이용한 세계 명사 특강 활성화 등을 통해 능동적 학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상시 강의평가 제도, 수업조교 제도, 강의와 연구 융합, 해외연수, 교육 시설 및 환경 개선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었습니다.



## 연구: 연구 중심 대학 기반 마련

### '창조21' 프로젝트에 총 28개 과제 접수



연구·교육·실천·교류의 유기적 통합을 통해 21세기 학문세계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고, 보다 나은 미래 문명 건설을 위한 대학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한다는 목표로 출범한 '창조21' 프로젝트에 모두 28개 과제가 접수되었습니다.

2008년 9월 접수된 예비계획서는 서울캠퍼스에서 23개, 국제캠퍼스에서 5개로 모두 28개 과제입니다. 이 가운데 서울캠퍼스 인문사회계가 11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의학계(6개), 국제 공학계(4개) 순이었습니다.

지난해 10~11월, 학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심사와 '창조21'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문사회·자연과학·공학계열 각 1개 과제, 의학계열 2개 과제가 선정되었습니다. 올 4월 2차 본 계획서 심사를 통해 5월 최종 과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창조21'은 경희가 세계적 명문 사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동력 가운데 하나이자, 미래 학문세계와 새로운 문명을 견인하는 획기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창조21'이 지향하는 학술기관은 기존의 편제를 넘어 각 단과대학·학과·전문대학원·특수대학원·연구소·산학협력기관·국내외 유관기관 등을 넘나드는 창조적 학술 운영의 주체입니다. 현실과 가상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전 세계 학술·문명의 거점 지역들이 긴밀하게 교류하는 미래 대학이 '창조21'을 통해 탄생할 것입니다.

지난해 5월 '창조21' 프로젝트를 공모하며 펴낸 안내 책자 <<Creation 21>>에는 뉴욕대학의 ITP, 골드스미스대학 문화연구센터, 버벡대학 버벡인문학연구소,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프린스턴대 우드로윌슨스쿨, MIT 미디어랩 등 6개 학술기관을 방문 조사한 보고서가 부록으로 실려 있습니다. '창조21'은 이와 같은 기성의 '통섭 노력'보다 더 창의적이고 포괄적이며 미래지향적인 학술기관의 태동을 기대합니다.

### 의생명과학원(가칭) 설립

의학·한의학·치의학, 약학, 생명과학 및 의공학 분야의 학제 간 연구·교육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우수한 연구 인력을 양성해 세계적인 연구 중심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의생명과학원(Biomedical Science Institute, 가칭)을 설립합니다. 의생명과학원은 동일 공간을 활용하고 고가의 중대형 연구 기자재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등 효율적인 연구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적 재산권을 관리하고 법률 문제를 지원하는 등 연구 결과의 실용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의생명과학원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단(단장 이혜정 외 16명)을 구성하고, 의생명과학원의 비전과 목표를 논의했습니다. 설립 준비단은 해외 및 국내 우수 연구소를 벤치마킹하고, 한약 및 천연물 연구·심혈관 및 뇌질환 연구·암 및 면역기능계 연구·생명공학 연구·의공학 연구 등 5대 핵심 연구과제를 선정했습니다. 또한 의생명과학원의 조직·규정·예산 등 운영 체계와 함께, 대학원 설립 운영안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준비했습니다.



의생명과학원은 앞으로 3단계에 걸쳐 추진될 예정인데, 1단계(2009~2010)에는 핵심 분야 연구팀을 선발해 중대형 연구 인프라를 발주하고, 통합 운영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국내외 석학과의 교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2단계(~2012)에는 전용 중대형 기자재를 도입하고, 전임 연구원과 교수를 채용하는 한편 대학원 설립과 국책과제 수주 등을 추진합니다. 3단계(~2015)에서는 전용 연구동을 확보하고, 석·박사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해외 유관기관과 협력체제를 갖출 것입니다. 3단계에서 의생명과학원은 '의생명 과학-경희'의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할 것입니다.

### 연구 지원 제도 강화

연구 지원 제도가 2007년에 견주어 크게 달라졌습니다. 우선, 국제 논문 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게재 예정 학술지 조건부 연구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SCI급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경우, 2007년에 1천만 원을 지원했는데, 2008년에는 1천2백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둘째,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기자재와 연구 인력을 지원했습니다. 지난해 10개 과제에 약 7억 4천만 원에 상당하는 연구 기자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으며, 17명의 연구인력(연구박사)을 지원했습니다. 2009년부터는 연구박사를 40여 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셋째, 2007년 1천만 원이던 신임교수 연구비 지원을 2008년 1천2백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논문 게재 장려금 제도로 개선했습니다. SCI급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실었을 경우 2백50만 원을 지급해, 2007년보다 80만 원을 늘렸습니다. 국내학술지의 경우, 인문사회·예체능 등재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면 2백50만 원을 지급합니다. 2007년보다 1백9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국제 학술지 조건부 연구비와 논문 게재 장려금은 경희대가 세계적인 연구 중심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한 토대를 다지는 사업입니다.

### 교원 인사 관련 규정 개선



우수 교수 초빙을 활성화하고 교원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 성과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보상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각 대학(원)별 자체 인사 시스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교원 인사와 관련된 규정 가운데 제정하거나 개정된 규정(세칙)은 모두 15개로 다음과 같습니다. 교원인사 기본 규정, 전임교원 임용 규정, 전임교원 임용 규정 시행세칙, 교수업적 평가 규정, 교수연구실적평정 규정, 교원 명예퇴직 규정, 전임교원 대외겸직 및 출강에 관한 규정, 교수 연구년제에 관한 규정, 교원 보수 규정, 경희Fellow 규정,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비전임교원 처우에 관한 시행세칙, 교원인사위원회 규정, 조교에 관한 규정.

예컨대 전임교원 임용 규정 시행세칙 가운데 변경된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채 시 부교수 승진 기준의 1.5배에 달하는 연구 실적이 필요합니다. 교원 심사 평정표 점수를 승진 70점, 재임용 60점으로 조정했고, 재임용 기간도 기존의 2, 3, 6년을 2, 4, 5년으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부교수 10년, 조교수 8년, 전임강사 4년 등 직급별 근무 연한을 규정했습니다.

## Search & Recruit Committee 우수 교원 상시 초빙



경희의 국제화와 세계화를 이끌어갈 우수한 교수 후보자를 자체적으로, 그리고 상시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학과 및 전공별로 Search & Recruit Committee를 설립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학부장 또는 전공 지도교수가 위원장(단일 학부·학과 대학의 경우 대학장 혹은 대학원장)을 맡는데, 국내외 박사학위 수여자 명단 및 논문을 검색하고 학회나 국내외 세미나에서 두드러지는 학자를 발굴하는 등 상시적 활동을 통해 기존의 공개 채용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우수 교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Search & Recruit Committee는 연구 우수 교원의 채용을 활성화시켰습니다. 특히 Global Eminent Scholar와 International Scholar 부문에서 외국 대학에서 탁월한 연구 실적을 보인 전임 교원을 초빙할 수 있었습니다. 정경대학은 존 아이켄베리 교수(Eminent Scholar)와 전광호 교수(이하 International Scholar)를 초빙했고, 생활과학대학은 발라치 교수를, 전자정보대학은 후미유키 아타치 교수와 시슈케 하라 교수를, 환경·응용화학대학은 알버트 S. 김 교수를, 생명과학대학은 이창용 교수를, 국제·경영대학은 W. 줄리안 코랍-카르포비치 교수와 프리드리히 크라토크빌 교수를 초빙했습니다. 위원회는 WCU 사업에서 선정되지 않은 분야의 외국 학자를 선별 접촉해 2009년 International Scholar로 초빙할 계획입니다.

Search & Recruit Committee의 활동은 석학교수와 경희 Fellowship 등으로 이어집니다. 위원회는 우수한 연구 실적으로 국내외에서 명성을 얻은 교내 전임교수를 석학교수로 선정, 교내 연구 풍토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정보디스플레이학과와 장진 교수가 석학교수로 선정되어 지원 혜택을 받았습니다.

최근 3년간의 연구 업적을 평가해 선정하는 경희 Fellow에는 약학과 김동현 교수와 경제학부 김정유 교수가 선정되어 연구 활동과 관련된 지원을 받았습니다. 경희 Fellow에 선정되면 연구의 허브(hub) 또는 신진 학자들의 멘토 역할을 맡게 됩니다. 현재 서울캠퍼스에서 23명, 국제캠퍼스에서 18명이 2009년 경희 Fellow 후보자로 추천되어 심의 중에 있습니다.



## 승진 및 업적 평가제 개선



교수의 연구 역량을 제고하는 것은 세계적 명문 사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입니다. 지난해 전임교원 임용 규정, 교수 업적 평가 규정, 교수 업적 평가 시행세칙, 교수 연구 실적 평정 규정, 연구년제에 관한 규정, 교원 보수 규정,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 실적이 우수한 교원에 대해서는 보상(특별승진제)을 실시하고, 연구 실적이 저조한 교수가 일정 기간 승진에서 탈락했을 경우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연구 풍토를 쇄신하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새로운 승진 및 업적 평가제에 따라 테크노공학대학 강용태 교수가 특별 승진을 했습니다.

교무처는 앞으로 특별 승진제를 활성화하고, 단과대학의 자율운영에 따른 승진 및 책임용을 전산화하며, 단과대학별 자체 승진 내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대평가(S급 10%)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변경하는 한편, S1·S2·G급 자격에 따른 교수 업적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활기 띠는 산학연 협력사업 지원

경희대 산학협력단이 산학연 협력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은 대학의 연구 성과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고, 우수한 연구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산업화가 가능한 특허를 발굴하고 지원합니다. 특허 출원은 2007년에 214건에서 2008년 297건으로 증가했고, 특허 등록은 2007년 117건에서 2008년 86건으로 감소했습니다.

산학협력단은 특허 지원 이외에도 산업체에 기술을 이전하거나 경희대가 보유한 기술을 홍보하는 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약학대학 정서영 교수팀의 혈관성 치매 치료제 관련 기술이 (주)뉴메드에 이전되어 9천3백만 원의 기술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또한 수도권 공공기술 이전 컨소시엄, 국가기술은행, 대학산업기술지원단 기술정보 DB 등을 대상으로 경희대의 보유 기술을 적극 알렸습니다. 지난해 수도권 주요 사립대의 산학협력단 대학 전입금 규모 부문에서 경희대가 44억 원으로 4위를 기록했습니다.

연구산학협력처에서도 산학연 협력사업을 돕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한의학 연구 성과를 사업화하는 주체인 경희대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설립(67쪽 '전진하는 경희' 참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희대 지주회사는 2009년 상반기에 설립합니다. 이외에도 한국과학재단이 주관하는 2008년도 신규 우수연구센터 육성 사업에 의과대 진병관 교수가 이끄는 신경퇴화제어연구센터가 선정되었습니다. 토목건축대 이석근 교수는 건설교통부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 사업단으로 선정되었으며, 같은 대학 김정태 교수의 지속가능건강건축기술연구센터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우수연구센터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 5대 정책 중점과제 '연구 부문' 연구 시행



경희대 전임교수의 연구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5대 정책 중점과제 중 '연구 부문'에 해당하는 이 연구 보고서는, 경희가 국내 5위·세계 100위권 대학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교수의 연구 역량을 제고하는 것, 즉 연구 중심 대학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연구산학협력처가 주관한 이 연구(총괄책임자: 정성현)는 중국 칭화대·싱가포르국립대를 방문 조사하고, 국내에서는 고려대·외국어대·건국대·한국예술종합학교 등과 비교하며 경희대의 현주소를 밝혔습니다. 연구 보고서는 "세계 속의 경희, 한국 속의 경희는 불행히도 어느 학문 분야에서도 강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면서 "총체적인 문제의 중심에 전임교원이 있다. 이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경희대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세계 대학 평가나 국내 대학 평가는 모두 교수들의 연구 실적, 그 중에서도 S(S)CI급 논문에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더욱이 논문의 수가 아니라 논문의 질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절대 논문 수에서 타 대학에 비해 모자라는 경희대로서는 당황스러운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고 연구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계 일류 대학 중에 교육 중심 대학은 없습니다. 연구 보고서는 경희대가 연구 중심 대학으로 갈 것인가, 교육 중심 대학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수월성은 우수한 연구력을 가진 교수의 수가 많으면 자연스럽게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구 결과, 연구 실적은 우수 교원·연구 인력(전일제 대학원생, 연구박사 등)의 수와 대외 연구비 수주액에 정비례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연구 보고서는 경희대가 세계적 명문 사학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에 대한 교수들의 책임감을 높이고, 연구자 간 경계를 허물어야 하며, 대학 구성원 사이에 연구 중심 대학으로의 전환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등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연구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즉 스타 교수를 특별 채용하는 동시에 대학원 정원을 조정해 국내의 우수 연구 인력을 확보하고 대형 연구 집단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실천 : 대학의 또 다른 미래, 사회적 책임

Peace BAR 페스티벌  
UN 세계평화의 날 기념  
국제학술회의 개최



정신적으로 아름다우며,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인간적으로 보람 있는 지구촌을 건설하기 위해 대학사회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는 열린 담론의 장 2008 Peace BAR 페스티벌이 지난해 11월 5일~7일 경희대와 신라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27주년 UN 세계평화의 날 기념 국제학술회의를 비롯해 경희공동체 심포지엄, 경희학생 포럼, 경희자원봉사 축제 등으로 구성된 이번 행사에는 UN 및 국내외 시민단체, 국내외 학자, 대학생 및 시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미래 문명, 미래 대학 : 지식과 실천의 새로운 지평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학술회의 전체회의에서는 ‘전환 속의 근대성’ ‘지식과 대학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대학-지식, 실천, 협력’ 등을 테마로 한 7편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특별전체회의에서는 세계시민포럼(WCF) 창설과 관련된 4개의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Ⅱ. 세계와 경희’ 참조).

영국 사우스햄프턴대 앤서니 맥그루 교수, 독일 카셀대 울리히 타이츨러 교수, 미국 보스턴대 필립 G. 알트바흐 교수 등의 발제와, 이에 대한 서울대 장희익 교수, UN 글로벌 콤팩트 특별자문관 마누엘 M. 에스쿠데로 박사, 이화여대 김혜숙 교수 등의 토론은, ‘문명사적 대변동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세계 시민적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가 요구된다’는 주장과 함께, ‘새로운 문명의 축으로 등장하고 있는 아시아가 인류의 공생을 위한 보다 구체적 가치를 제시해야 한다’는 견해로 수렴되었습니다. ‘대학교육은 시민 참여와 시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증대하는 등 패러다임의 전환을 도모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출되었으며,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이 커리큘럼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결국 대학의 자율성과 대학의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노력이 대학의 미래를 열어가는 첩경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대학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대학문화’를 주제로 한 경희공동체 심포지엄은, 대학문화의 현 상황을 진단하는 것에서 출발해, 소통과 화합, 배려와 품격이 있는 경희공동체 문화를 일궈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결과, 대학 행정의 전문화와 직원 재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대학 평가 순위보다 교육 기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아울러 교수, 직원, 학생, 동문들이 참여하는 자율적 협의 거버넌스의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이외에도 미래문명원이 주관한 경희학생포럼에는 국내외 대학생 300여 명이 참여, 동북아 공동체와 지구시민사회의 도래, 그리고 글로벌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세계 대학생 실천 방안을 놓고 기조 강연회와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대학생들은 글로벌 이슈에 대해 새롭게 눈을 뜨게 된 것은 물론, 2009년 창립되는 세계시민청년포럼(World Civic Youth Forum)의 의의에 대해서도 폭넓은 이해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08 Peace BAR 페스티벌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국내 14개 유력 일간지에서 총 16회에 걸쳐 보도되었으며, SBS 등 공영방송에서도 다루는 등 ‘국제화·세계화 경희’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학술회의에 참가한 학자 중 일부를 International Scholar로 초빙하기 위해 접촉한 결과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 UN 평화공원 및 글로벌 NGO 콤플렉스

UN의 목표와 경희의 창학정신은 동일합니다. 바로 평화입니다. 경희대는 UN과 손잡고 새로운 문화 세계, 즉 인류사회의 평화와 공영을 이룩하기 위해 1960년대 중반부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UN 평화공원과 글로벌 NGO 콤플렉스는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소극적 평화'를 넘어, '적극적 평화', 즉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보편 가치와 지속 가능한 조건을 창출하는 상징적 공간이자 글로벌 거버넌스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국가 중심의 평화가 아니라 인간 중심의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구시민사회와 대학의 적극적 연대와 참여가 관건입니다. 지속 가능한 환경, 새로운 에너지와 식량 주권 확보, 문명 간 충돌 예방, 인권 보호, 여권 신장, 아동학대 방지, 다문화주의 등을 토대로 하는 인간 중심의 평화 세계는 지구시민사회, 초국적 기구, 기업, 대학, 국가 사이에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가능합니다.

2009년 5월, 종합구상도와 함께 사업 단위별 계획과 조감도가 완성되는 UN 평화공원 및 글로벌 NGO 콤플렉스는 UN 평화박물관(가칭)과 UN 평화공원을 비롯해, 글로벌 타워관, 인터내셔널 하우스 및 호텔, 자연생태공원 그리고 이미 건립된 평화노천극장 등으로 구성됩니다. 글로벌 타워관에는 새로운 개념의 세계적 학술 네트워크인 글로벌 스튜디오, NGO 관련 단체와 연구소를 유치하는 NGO 콤플렉스 외에도 UNDP, UNESCO, UNICEF 등의 한국 또는 아시아 지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UN 평화공원 및 글로벌 NGO 콤플렉스가 완성되면 다양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대학이 인류 평화를 위해 지구적 차원에서 무엇을 어떻게 공헌할 것인지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UN과 NGO 그리고 다양한 초국적 기구와 교류 협력함으로써 경희대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둘째, 평화와 공영을 추구하는 지구시민사회의 네트워크가 구현되어, 경희대가 평화학 연구와 평화 운동의 세계적 중심지로 떠오를 것입니다. 셋째, 이를 통해 미래 문명사회를 모색하는 데 있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마지막 냉전 지역인 한반도에서 인류의 보편가치이자 미래가치인 평화를 연구하고 확산시킴으로써 한반도 평화통일과 함께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세기 국제기구 중심지인 뉴욕과 제네바처럼 경희대가 지구시민사회가 평화 활동을 펼쳐나가는 중심지로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 '아시아 포럼' : 아시아 지역의 초국가적 문제 조명

'인간 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본 아시아연대' '아시아의 초국가적 환경문제' '이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아시아 사람들' 등 모두 10강으로 짜여진 2008 연중기획 '아시아 포럼'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경향신문>,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인류사회재건연구원이 기획한 이 포럼은 빈곤, 마약, 환경, 광역질병, 이주노동자, 테러 등 아시아 지역에 산적한 초국가적 문제들의 현주소를 전방위에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와 한국의 시민사회가 이에 대처하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경희대와 참여연대를 오가며 한 달에 한 번꼴로 열린 '아



시아 포럼’은 지난해 12월 17일(제10강) ‘초국가적 문제와 아시아 연대’를 주제로 이재현(국제연대위원회 실행위원), 이성훈(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부장), 김춘이(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국장) 씨 등이 특별좌담을 갖고, 아시아를 배경으로 한 한국 시민운동의 새로운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 인문학, 사회적 약자를 찾아가다



문학, 역사, 철학, 글쓰기, 예술 등 인문학이 저소득층 주민 및 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를 찾아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2006년 첫선을 보인 경희대 시민인문학 강좌는 2008년에는 서울시와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휴먼 서울시민 인문학 코스’라는 이름으로 개편되어 보다 확대되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서울 및 경기 15개 지역 기관에서 약 350명이 강좌에 참여했습니다.

이 인문학 코스는 사회 소외계층으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극복하고 자아 존중감을 회복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지원의 한계를 뛰어넘어 삶의 가치와 주체성을 확립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인문학 강좌는 대학과 사회가 상상하는 새로운 모델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연구와 교육의 성과를 사회에 환원하고, 사회적 약자는 인문학 강좌를 통해 사회와 연대할 수 있는 당당한 주체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2008년도 ‘휴먼 서울시민 인문학 코스’는 2008년 4월에 개강하여 8개월간 진행되었는데, 문학, 철학, 역사, 글쓰기 외에 현장 체험학습과 저명 인사의 특강 같은 과목으로, 주 3회씩 수업이 이어졌습니다. 예컨대 철학 강좌는 ‘삶과 죽음’을 주제로 놓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성찰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글쓰기 과목은 자기 삶을 기록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함께 생각하는 것을 시작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글쓰기로 진전되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은 대학의 교육 내용이 자신들의 현실적 문제와 직접 연관된다는 사실에, 삶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철학으로 자기 삶을 들여다보고, 박물관을 찾아 고금 문화에 대해 가졌던 막연한 두려움을 허물었습니다. 자아 발견은 물론 타자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세도 갖게 되었습니다. 시민 인문학 강좌 과정을 졸업한 학생들은 대부분 교육과정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는 실정인 데다, 교도소 재소자, 성매매 여성, 새터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 강좌가 속속 개설되어, 소외계층을 위한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휴먼 서울시민 인문학 코스’와 같은 인문학 강좌는 현실과 유리되었던 인문학 교수와 학생, 특강을 맡았던 작가와 저명인사들에게도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인문학이 사회 현실과 함께 호흡하는 ‘살아 있는 학문’이라는 사실을 새삼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눔과 기여의 지구적 실천 -  
Kyung Hee Global Praxis 60



개교 60주년에 즈음하여, 인류사회에 기여하는 세계시민 양성이라는 경희의 창학 정신을 창의적으로 계승·발전시키고자 새로운 사회 공헌 모델을 정립하려 합니다. 단순한 사회 봉사를 넘어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지구적 차원에서 새롭게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나눔과 기여, 지구적 실천의 길-Kyung Hee Global Praxis 60’은 인류사회에 기여하는 세계적 명문 사학의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Kyung Hee Global Praxis 60은 교수, 직원, 학생, 동문 등 경희 전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요적 사업으로, 2009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되지만, 향후 지속 가능한 정규 프로그램으로 정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Kyung Hee Global Praxis 60은 지난해 12월 9일 경희의료원 소화기센터 로비에서 ‘지구촌 이웃돕기, 사랑의 나눔 바자’를 열어, 지구적 나눔과 실천의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경희학원 명예이사장 故 오정명 여사의 유품 기증식과 바자회, 문화행사 등으로 엮어진 이 행사에서 약 4천만 원의 수익금이 모아졌는데, 이 수익금은 개교 60주년 기념 ‘경희가족 해외 봉사단’의 활동 기금으로 쓰입니다.

경제력과 인종, 종교, 이념 등의 경계를 가로질러 보다 나은 인류사회 건설을 위한 캠페인으로 구체화될 Kyung Hee Global Praxis 60은 평화, 인권, 생태-환경, 개발 등 글로벌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대학의 국제사회 기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천함으로써, 대학의 사회 공헌에 있어 새로운 모델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09년 경희대의 교수, 직원, 학생, 동문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개발 공모 및 실천 사업이 전개될 계획입니다.

2009년 7월 15~30일에는 캄보디아에 ‘경희가족 해외 봉사단’을 파견합니다. 교수, 학생, 직원, 동문, 의료원, 홍보대사 등이 참여하는 연합봉사단이 교육, 기술 지원, 문화예술, 의료 지원 등의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Kyung Hee Volunteer Network  
지구적 공헌 모델 모색



그동안 개별적으로 활동해오던 경희학생 봉사단, 직원 봉사단, 시민인문학 봉사단, 한마음 봉사단, 네오플러스 봉사단 등이 체계적으로 결합하여 21세기가 요구하는 대학의 새로운 사회 공헌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경희 Volunteer Network는 Kyung Hee Global Praxis 60 사업과 연계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대학의 면모를 갖추는 것은 물론, 지구적 차원의 지속 가능한 사회 공헌 모델을 창출해, 인류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세계적 명문 사학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지난해는 경희대 학생과 교직원, 병설기관의 봉사활동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경희학원 전체의 사회 공헌 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계 운영하는 체제를 모색하는 단계였습니다. 서울과 국제캠퍼스의 ‘경희학생 봉사단’은 재할 승마와 해비타트 봉사를 비롯해, 방과 후 교실 운영, 사랑의 연탄 배달 등의 활동을 지속했고, 경희의료원의 ‘한마음 봉사단’과 동서신의학병원의 ‘네오플러스 봉사단’은 몽골, 캄보디아,



아프리카 등지의 해외 의료봉사와 여주, 평내, 당진 등지에서 국내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직원 자원봉사단체 ‘나누리’는 장애인의 날 행사와 독거노인 집 수리 봉사 등을 진행했습니다.

**재학생 해외 봉사단  
러시아·베트남에 파견**

20세기 한국현대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베트남과 러시아 지역에 학생 해외 봉사단을 파견했습니다. 참가한 학생들은 다른 문화와 직접 접촉하고 대화하는 봉사활동을 통해 국제화 마인드를 익히고, 21세기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동)아시아의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봉사단 34명(인솔 교수 2인 포함)은 지난해 1월 14일~28일(14박 15일)까지 하노이 시 소재 하노이대학교 고엽제 피해 아동 보호시설인 탄순 피스 빌리지에서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하노이 대에서는 문화 교류에 비중을 두었고, 탄순 피스 빌리지에서는 기숙사 환경을 개선하고 물품을 지원하는 것과 아울러,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어린이들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베트남 봉사활동은 하노이 외국어대 한국어과의 요청으로 2003년부터 실시되어, 한국어 교육 및 문화 교류, 노력봉사, 의료봉사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쌓으며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름방학 기간에는 러시아 연해주에 재학생 해외 봉사단이 파견되었습니다. 지난해 7월 3일부터 20일까지(17박 18일) 봉사단 25명(인솔 교수 1인 포함)이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 고려인 정착촌에서 정착촌 건설을 지원하면서 한국 교육 및 문화 교류 활동을 펼쳤습니다. 제조 작업, 울타리 변경, 청국장 제조 지원, 공부방 벽화 그리기, 고려인 가정 일손 돕기 등으로 이루어진 노력봉사와 함께 연과 부채 만들기와 체육 활동 등 문화 교류가 이어졌습니다.

경희대 해외 봉사단은 참가 학생들이 장학금(1인당 100만 원, 개인 부담 50만 원)을 지원받는 데다가 기획과 준비 단계에서부터 현지 활동에 이르기까지 재학생들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봉사활동의 효과가 크고 학생들 또한 보다 큰 성취감을 갖게 됩니다.

**‘의·과학 경희’의  
나눔과 기여, 의료봉사**

2008년에도 ‘의·과학 경희’의 사회적 실천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경희의료원은 평내, 여주군, 보령시, 고흥군, 무주군 등 국내 6개 지역에서 모두 108명의 의료진이 총 1,600여 명의 지역 주민에게 내과, 이비인후과, 소아과, 한방, 물리치료 등의 치료와 검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경희의료원은 2008년 9월 1일부터 13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 의료진 11명, 간호사 10명, 진료 지원 인력 8명으로 구성된 의료봉사단을 파견, 7천63명에 달하는 현지 주민을 치료했습니다. ‘환자 곁에서, 환자 편에서’라는 경희의료원의 나눔과 기여의 정신은 국내뿐 아니라 외국으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동서신의학병원도 무료 진료팀을 꾸려 강원도 정선군을 찾았습니다. 유명철 원장 외 40명의 의료진은 2008년 12월 13일, 강원도 정선군 북면 여량리 북면복지회관에서 지역 주민 581명에게 류머티즘,

정형외과, 안과, 치과, 한방침구과 관련 진료를 실시했습니다. 동서신의학병원은 앞으로 정선군에서 정기적으로 진료봉사를 하기로 의료협약을 맺어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 국제 NGO·세계적 연구기관 인턴십 프로그램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에 진출하고자 하는 재학생들에게 현장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평화와 공영의 대안 문명을 모색하고 21세기 지구시민사회의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Kyung Hee-UN/IGO 인턴십 프로그램이 지난해 12명의 학생을 선발, 6개월 동안 UN DPI, UN DESA, UN ESCAP, CONGO, UNESCO 한국위원회(한국) 등에서 배움과 훈련 과정을 갖도록 했습니다.

2006년부터 시작되어, 지난해까지 모두 30명(학부 20명, 대학원 10명)이 혜택을 받은 이 프로그램은 설명회와 공고를 통해 학생을 모집합니다. 서류 심사와 영어 면접 및 논술을 거쳐 최종 선발된 인턴 후보들은 한 달 동안의 사전 교육을 마친 후 항공료와 체제비를 포함한 장학금을 받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2007년 UN DPI에서 인턴 과정을 마친 정치외교학과 출신 정한나 양이 UN 직원으로 채용되었으며, 정 양과 같은 해, 같은 기관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던 국제경영학부 김나혜 양은 UN 행정직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미래문명원에서 주관하는 이 프로그램은 앞으로 보다 많은 해외 기관에 인턴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국내 지부가 있는 국제 NGO와 공신력 있는 국제 NGO, KOICA와 연계망을 갖고 있는 국내외 NGO, 국제적 연구 재단 및 권위 있는 연구소 등을 계속 타진해나갈 것입니다.





#### 새 천년 인류공동사회 대선언

1. 새 천년을 맞아 원대한 인류이상 당회적 요청사의 비라보며 국제화, 민주화, 정보화, 인간화의 시대정신에 따라 아를담고 풍요하고 보민되는 사회 이룩한다.

2. 물질만능 피학기술 지상주의에서 오는 모든 부조리를 거부하여 내고 인간중심의 서식기연 사회를 이루어 인간적인 인간사회 문화적인 복지사의 이룩한다.

3. 인간이 역사문명의 주체로서 공존공영하여 자유와 평등을 함께 보풍하는 진정한 민주주의 보원적 민주사회를 이루어 문화인답게 사는 사회를 이룩한다.

4. 약속감지하는 최원급에서 벗어나 인격적 인간으로 문화국민 사회 이루어 재회적, 제원적 이기주의를 버리고 포혜협동하는 지구 공동사회를 이룩한다.

5. 우리 인류는 맑은 내일을 기약하여 새 천년의 역사적 소명을 받고 Neo-Renaissance 운동에 함께 나서서 Pax Romana가 아닌 만국주권에 의한 Pax UN의 영구 평화사회를 이룩한다.

## 경희-씨티그룹 NGO 인턴십 제3기 프로그램 '성황'



21세기 시민사회의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경희대 NGO대학원과 씨티은행이 '제3기 씨티-경희대학교 NGO 인턴십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전국 대학(원)생 120명을 선발해 국내 16개 광역시·도에 소재하는 70여 개 NGO에 인턴으로 파견, 현장에서 교육과 훈련 과정을 제공했습니다. 선발된 대학생들이 인턴으로 활동하는 8주 동안, 월 6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시민사회의 역할과 방향, 환경과 인권의 현주소 등을 주제로 한 특강과 함께 선배 인턴의 경험담을 들으며 NGO 인턴의 자세를 가다듬은 학생들은 겨울 방학 기간인 2008년 12월 29일부터 2009년 2월 20일까지 8주에 걸쳐 다양한 현장에서 한국 시민운동의 현실을 체험했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 인턴으로 활동한 포항공대 김건우 군은 보고서를 통해 "그 어떤 경제적 유인도 상근 활동가의 '정의를 향한 열정' 만큼 사회를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열정을 가진 분들과 두 달간 함께한 것만으로도 잊지 못할 경험을 한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차세대 NGO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된 이 프로그램은 3년차를 맞으면서 정착 단계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번 인턴십 프로그램에는 한국씨티은행이 2억 3천3백여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 박물관과 함께하는 신나는 자연탐험

경희대 자연사박물관이 지역에 거주하는 미취학 아동, 초등학교 저학년, 가족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대학의 '문화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007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08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박물관과 함께하는 신나는 자연탐험'은 지역사회의 요구와 특성에 바탕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 초등학교 저학년, 외국인, 주말 가족 등으로 프로그램을 세분하고, 전시실과 전시품을 활용하되, 주 5일제에 걸맞은 교육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미취학 아동 프로그램이 12회, 초등학교 저학년 프로그램이 15회, 주말 가족 프로그램이 6회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예컨대 미취학 및 초등학교 저학년에게는 '나는 새 박사' (조류 연구실), '나는 패션디자이너' (포유류, 조류, 파충류실)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했고, 주말 가족에게는 '오싹! 오싹! 어둠 속 박물관 탐험'을 통해 생물의 다양성을 습득하면서 가족이 함께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했습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의·과학(Medical Science) 경희

### 경희의료원, 진료 인프라 개선

2008년 경희의료원은 로봇수술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핵심 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동서건강증진 센터를 리모델링하며 국가고객만족도(NCSI) 의로서비스 부문 3위라는 위상을 확고히 했습니다(62 쪽 '전진하는 경희' 참조).

2009년 1월 국소부위를 절개하여 정교한 시술이 가능하고, 수술 성공률과 회복 속도에서 기존 수술 방식보다 월등한 능력을 갖고 있는 로봇수술 시스템을 도입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동서신의학병원과 공동 사용할 수 있어 시너지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외과, 흉부외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등에 주로 적용됩니다.

암센터와 토모센터를 활성화하여 강소 암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암센터 주도 아래 토모를 운영하고, 암 진료 스태프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진료 프로토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학제 간 접근을 통해 암 협진 체계를 완비할 예정입니다.

내분비 장애 환자를 진료할 뿐만 아니라, 원스톱 검사를 실시하고, 환자를 교육할 수 있는 공간까지 갖춘 내분비대사센터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내분비대사센터가 설립되면, 맞춤 진료와 심층 진료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뇌·혈관 전문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심초음파 장비 등 첨단기기와 보다 개선된 진료 프로세스를 갖추었으며, 심장혈관계 수술을 위한 진료진을 영입했습니다.

치과대학병원은 지난해 9월 실시한 치과의료기관 시범 평가 결과, '환자의 권리와 편의' 외 7개 부문 전 분야에서 총족률 95~100%를 달성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는 2007년 5월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로 선정된 데 이어, 지난해 5월 의료기기 사업 발전과 국민 건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임상의학연구소는 FERCAP(the Forum for Ethical Review Committees in the Asian and Western Pacific Region) 인증을 받아, 임상시험에 관한 과학적·윤리적 심사 체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 이 인증을 받은 병원은 경희의료원을 비롯해 삼성의료원, 아산병원, 부산백병원 등 6개 병원입니다.

### 신개념 종합의료기관 동서신의학병원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은 동서양 의학의 융합을 통해 '신의학' 창조를 지향하는 신개념 종합병원으로, 2008년 '조화 속의 자립경영 기반 확립'을 목표로 진료, 시설, 인력, 연구 등 기초 인프라 구축에 집중해 차별화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2006년 6월 진료를 개시한 이래 2년 만에 외래환자 100만 명을 돌파했으며, 하루 평균 외래환자 2천 명을 달성하는 등 초과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병원 환경을 환자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외래 병동 구조를 바꾸었고, EKG(심전도)실을 이전했으며, 건강검진센터 내시경실을 확장하는 등 공간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주치장 전용 승강기와 병동 전용 외부 조망형 승강기를 증설해 환자에게 편안한 진료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동서신의학병원은 이미 2007년 의료기





관 평가 결과, 환자 만족도 부문에서 입원과 외래 모두 최상위 등급(A)을 받아 환자 중심의 서비스를 추구하는 병원으로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해 동서신의학병원은 국립 장기이식센터로부터 ‘뇌사 판정 대상자 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장기이식 분야에서 최상위 의료기관으로 인증받았습니다. 진료 분야에서는 PET-CT, MRI 3.0, 64 MD CT 등 기본 의료장비에 선형가속기(linear accelerator) 등 최첨단 의료기기를 추가 배치하고, 방사선 종양학과를 개설해 암환자들에게 최적으로 진료를 제공할 것입니다. 암 진단에서 치료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하나로 집약하는 원스톱 진료 시스템을 목표로 현재 5대 암 건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동서신의학병원 내 한의과대학병원은 지난해 5월 보건복지가족부가 처음으로 실시한 한방의료기관 시범평가에서 11개 부문 중 10개 부문에서 A 등급을 받았습니다. 11월에는 제10회 한의학국제박람회 참가해 한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했습니다. 치과대학병원은 진료 공간을 환자 중심으로 재배치하여 진료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고객이 원하는 맞춤 진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개원 2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 진료의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신개념 종합병원 동서신의학병원은 2009년을 ‘혁신과 변화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 동력 마련’을 목표로, 진료와 연구, 경영과 홍보 등 각 분야에서 프로세스 혁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 ‘제3 의료원’ 설립 예정



경희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제3 의료원’을 국제캠퍼스에 설립합니다. 제3 의료원은 진료와 교육은 물론 새로운 의료 기술과 신약 개발 등 복합 산업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산학 협동 연구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과학 경희’의 이미지를 국내외적으로 격상시킬 제3 의료원은,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대학의 역할을 강조하는 창학 이념을 구현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제3 의료원 설립 방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제3 의료원은 정체되어 있는 의학 계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경희의료원 및 동서신의학병원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국제캠퍼스 내 생명공학 분야의 학문적 잠재력을 첨단 의료 시설 및 인력과 결합, 관련 연구 성과를 극대화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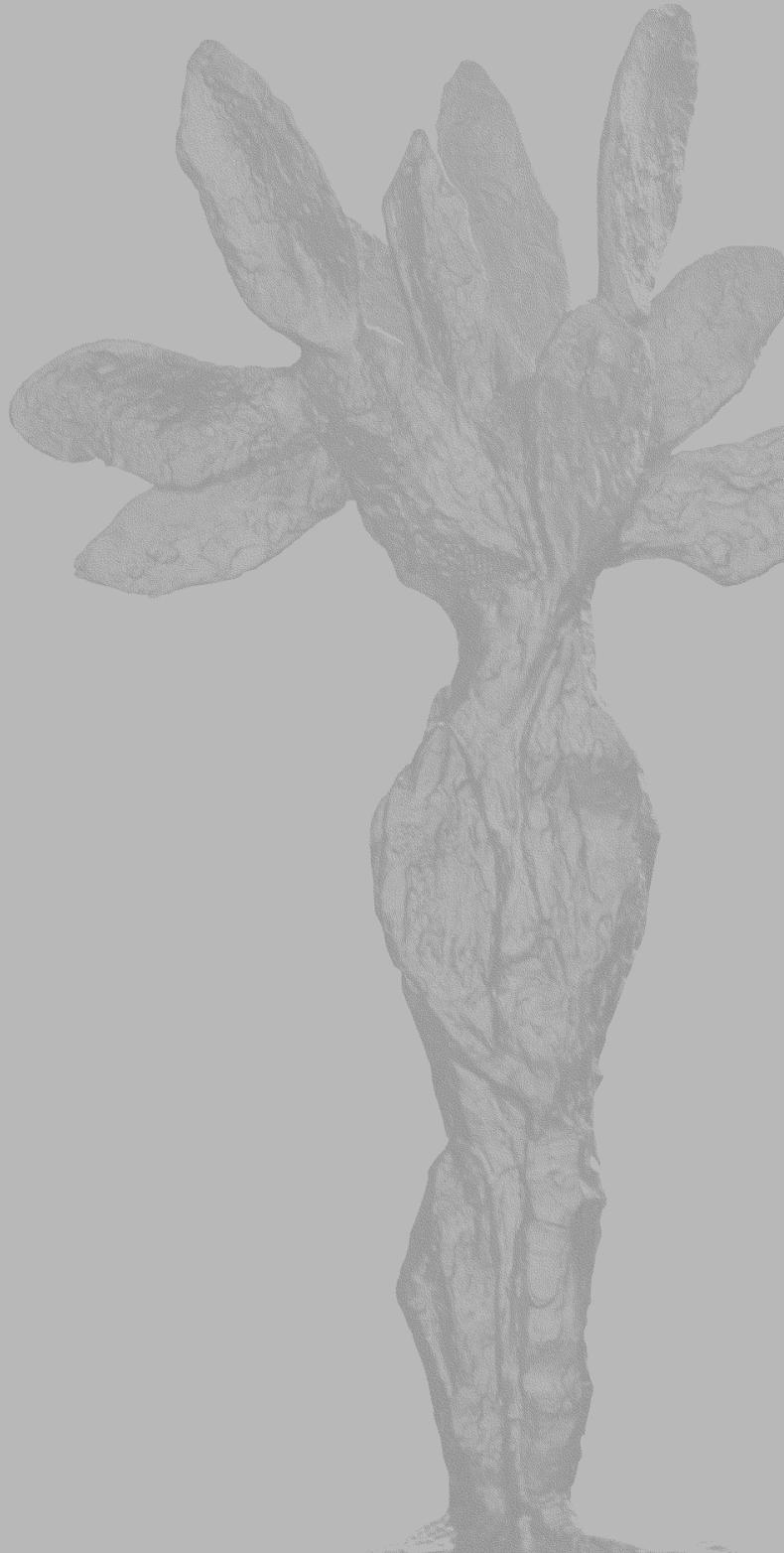
제3 의료원은 수도권 남부 신도시 지역을 위한 최첨단 의료기관에서 멈추지 않고,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초일류 전문기관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제3 의료원은 5개 첨단 센터와 임상 진료과, 한방 및 치과 진료부로 구성되는데, 개원 초기에는 1천2백 개 병상에 9백 명의 인력으로 출범할 예정입니다. 제3 의료원에는 동서의학대학원, 의약품연구센터, 임상의학연구센터, 바이오메디컬센터, 의료경영연구센터 등의 연구 성과가 지원됩니다.

제3 의료원은 ‘또 하나의 병원’이 아닙니다. 임상 위주의 대학병원을 뛰어넘는 새로운 의료기관, 즉 연구 및 산학 협력의 강화를 통해 대학의 국제적 기여를 높일 수 있는 신개념 종합병원입니다.

# 세계와 경희

세계시민포럼(WCF) 출범

‘국제화 경희’는 ‘의·과학 경희’와 함께 경희대의 이미지와 정체성을 구축하는 토대이자 목표입니다. 경희대는 2009년 세계시민포럼(WCF) 1차 포럼을 서울에서 개최함으로써 국제화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릴 것입니다. 국제화는 경희의 빛나는 역사와 전통이자, ‘학문과 평화의 전당’으로서 세계적 명문 사학의 위상을 확립하려는 경희의 궁극 목표입니다. 2009년 출범하는 WCF는 글로벌 스튜디오 네트워크와 연계되어, 경희대를 지구적 차원의 지식 공동체의 센터로 자리 잡게 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 경희가 만든 지구협력체 WCF 출범



학술교육기관, 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 정부, 기업 그리고 언론 등이 참여하여 인류평화와 복지, 지구 정의를 모색하는 국제포럼이자 지구협력체(Global Institution)이며 지구적 실천의 주체인 '세계시민 포럼(World Civic Forum, WCF)'이 2009년 5월 출범합니다.

WCF는 보다 나은 인류사회를 가로막고 있는 지구적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과 연구, 실천과 교류 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 세계 이해 당사자들이 대화와 소통, 제휴와 협력을 통해 변화와 창조를 견인하는 새로운 보편 가치를 창출할 것입니다.

WCF는 오랜 준비 과정을 거쳤습니다. 2001년 글로벌 NGO 콤플렉스 건립 계획안을 작성할 때 처음 구상되었고, 2003년 WCF 안이 발표되었습니다. 2007년 WCF 연구기획안이 완성되었으며, 같은 해 6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WCF의 설립을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Peace BAR 페스티벌과 UN 세계평화의 날 기념 국제학술회의에서 WCF 창설을 위한 사전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는 5월 5~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WCF 2009는 '우리의 아름다운 지구행성을 향하여 (Building Our Humanitarian Planet)'를 주제로 설정했습니다. '지구정의 구현을 위한 시민가치' '글로벌 거버넌스와 시민 참여' '기후 변화 등 지구적 현안 해결을 위한 시민 행동' 등의 의제를 놓고 전 세계 학자, 연구자, 관료, 활동가, 기업인 등 이해 당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WCF는 격년에 한 번씩 열립니다. 2009년 1차 포럼은 UN DESA(경제사회국)와 경희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2011년 2차 포럼부터는 '개최권 공유 원칙'에 따라 다른 대학이 개최합니다. WCF는 기관 파트너의 참여와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기관 파트너가 전체회의를 구성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대학, 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 정부, 기업, 언론기관 등이 기관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WCF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다양한 교육·연구·실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운영하는데, 이 프로그램들은 사이버 네트워크를 통해 기관 파트너 및 전 세계 시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입니다.

WCF는 지구촌 축제의 장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WCF의 창조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전통문화와 현대문화 관련자들이 어우러지는 문화예술제 '지구적 열정 (Planetary Passion, 가칭)'을 개최합니다.

## WCF와 함께 열리는 세계시민청년포럼(WCYF)

21세기 미래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지도자로 성장할 세계의 청년들이 지구적 문제를 놓고 토론하고 실천하는 '세계시민청년포럼(World Civic Youth Forum, WCYF)'이 WCF와 함께 설립됩니다. WCYF 1차 포럼은 WCF 1차 포럼과 같은 시기(5월 5~8일)에 경희대 국제캠퍼스에서 개최됩니다. 지구적 이슈에 대한 전 세계 젊은이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미래에 대한 상상력과 도전 의식을 갖게 함으로써 바람직한 인류사회 건설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것이 WCYF의 목표입니다.

국내외 대학생, 국내외 학자, 연구소 및 학술단체 그리고 시민단체가 참가하는 WCYF 1차 포럼의 대



주제는 '21세기 글로벌 이슈와 대학 청년의 역할'입니다. 국내외 대학생 및 관계자 700여 명(국내 학생 500명, 국내 외국인 학생 100명, 국외 학생 100명)이 참석하는 WCYF 1차 포럼은 크게 학술대회와 문화행사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국제학술대회는 전체회의와, 젠더·평화·환경·인권·개발·문화 등을 주제로 한 8개 섹션으로 구성됩니다. 문화행사는 태권도 퍼포먼스를 비롯해 세계 젊은이들이 '따로 또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Global Collaborative 2008



2006년 여름방학부터 개설된 Penn-Kyung Hee Collaborative가 2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해부터 Global Collaborative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뿐 아니라 미국의 콜게이트대학, 미네소타대학, 프린스턴대학, 중국의 북경대학, 영국의 킹스칼리지 등 해외 우수 대학과 UN, CONGO 등 국제기구가 참여해 다양한 강의를 신설되었습니다. 특히 UN과 INGOs 트랙은 UN과 CONGO 고위 인사들의 현장 경험과 교수들의 이론이 결합해 다른 대학의 서머스쿨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참여 대학은 물론 참가 학생들의 국적 및 출신 학교가 다양화되어 명실상부한 Global Collaborative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2007년도 20%에 불과하던 외국 학생 비율이 2008년도에는 32%로 늘어났고, 서울대를 비롯한 국내 타 대학 학생들의 참여도 2007년 0.5%에서 2008년 8%로 증가했습니다. 참여 학생들의 만족도 역시 크게 높아져, 후배 또는 다른 학생들에게 Global Collaborative 프로그램을 추천하겠다는 수강생이 91%로, 2007년에 견주어 7% 이상 많아졌습니다. 2008년에는 참여 학생 간 교류의 폭을 넓히기 위해 다양한 학외·주말 활동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아름다운 재단·실업극복재단 등 NGO 단체에 인턴으로 파견되어 시민 운동의 쟁점과 활동가의 고충을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2008 Global Collaborative는 대중매체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주간조선>과 <Korea Times>를 비롯해 모두 11건의 관련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 지구적 차원의 신개념 교육기관 글로벌 스튜디오 네트워크(GSN)

급속한 세계화와 정보화는 테크놀로지의 눈부신 변화와 지식의 폭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와 혁신은 대학으로 하여금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자문하게 만듭니다. 대학에 요청되는 시대적 사명은 학문적 수월성을 기반으로 문명사적 전환을 선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스튜디오 네트워크(GSN)는 학문적 권위의 재건을 통해 인류사회의 재건을 지향해온 경희대가 대학의 미래와 인류의 미래를 위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교육 프로그램이자 교육기관입니다. GSN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육·연구·문화·문명의 거점 도시를 화상으로 연결해 전 지구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전방위적 프로젝트로, 학문적 수월성과 새로운 보편 가치를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GSN은 혁신을 거듭하는 테크놀로지에 기초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온라인 교육 및 차세대 e-

learning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육과 문화(문명)의 영역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는 창조적인 지식 공동체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GSN은 대학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연구소, 문화단체, NGO, 기업 등이 소통과 교류, 봉사와 협력을 통해 지구적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커뮤니티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GSN은 세계의 교육과 연구, 문화와 문명을 주도하는 핵심 도시들에 스튜디오를 설치해, 전 세계 학자와 학생, 시민들이 온라인상에서 만나게 함으로써 학문과 교육 그리고 실천의 최고 수준과 최신 경향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경희대의 우수한 강의를 전 세계로 내보낼 수 있으며, 전 세계 연구자가 실시간 화상 세미나를 열 수도 있습니다. GSN을 통해 서로 다른 학문과 문화, 문명이 대화를 나누면서 바람직한 미래 문명을 모색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GSN은 2009년 출범하는 WCF의 핵심 사업의 하나로 정착하면서 경희대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GSN의 향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0년까지 인터넷 방송국을 개설하고 뉴욕과 베이징에 스튜디오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이어 2012년까지 스튜디오를 추가로 개설하는 한편 사이버대학원을 운영하면서 자체 기구로 독립합니다. 2015년경이면 국내외 대학과 관련 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안정적 단계로 접어들어, 세계적 명문 사학 경희와 함께하는 세계적 지식공동체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 새로운 국제화 프로그램 복수학위 제도



복수학위 제도란 경희대와 해외 자매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학생에게 양교에서 각각의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를테면 경희대에서 학사학위를 받고 외국의 협력 대학에서 학사나 석사학위를 하나 더 받는 것입니다. 복수학위를 취득하려면 두 대학에서 각각 2년간 재학해야 하며,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4년 안에 두 대학에서 학위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복수학위 제도는 대학의 국제화 전략 프로그램이자, 해외 우수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편입학(장학) 프로그램입니다. 원어민 수준에 가까운 언어 능력과 타 문화에 대한 비교문화적 관점을 갖게 되어, 국내외 취업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경희대 학부의 경우, 일본의 입명관아시아태평양대학(APU), 동경국제대학 등과 협정을 체결해, 현재 입명관아시아태평양대학 학생 2명이 경희대 사회학부와 관광학부에 각각 재학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은 프랑스의 Ecole Polytechnique 등과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수학위 제도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학과는 국제캠퍼스 한 국어학과로, 2006년 실시한 이래 지금까지 러시아 극동대학 등 5개국 6개교에 23명을 파견하고, 22명을 초청했으며, 이 중 7명이 복수학위를 받았습니다. 복수학위 제도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상대 대학에 파견되었을 때 수업료를 면제받습니다.



글로벌 인재의 산실  
'공학교육 국제 인증' 획득



지식기반 기술사회에서 엔지니어 자격의 국제적 통용성을 확보하는 것은 엔지니어 개인뿐 아니라 기업과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공학교육 인증제도는 1932년 미국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엔지니어 평의회(ECPD)'가 처음 도입한 이래 미국 공학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크게 기여한 제도입니다.

국내에서는 1999년 8월 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EK)을 설립하면서 공학교육 인증제도를 시행했으며, 2007년 7월 ABEEK가 워싱턴어코드(Washington Accord) 정회원으로서 가입함으로써, 국내에서 공학교육 인증을 받은 졸업생이 전 세계 모든 회원국, 가령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의 졸업생과 법적·사회적으로 동등한 자격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경희대는 2006년 공학계열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9개 전공에서 공학 인증 기준(KEC2005)에 맞추어 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했으며, 2008년 12월 모든 프로그램이 공학교육 국제 인증을 획득해 현재 전자·전파공학 전문, 컴퓨터공학 전문, 기계공학 전문, 산업공학 전문, 원자력공학 전문, 화학공학 전문, 환경공학 전문, 토목공학 전문, 건축공학 전문 등 9개 전공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공학교육 국제 인증을 획득하면 다양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우선 학생들은 전공에 대한 기초 실력과 기본 소양을 다지게 됩니다. 엔지니어 자격시험에 응시할 때 유리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엔지니어로 입문할 수 있는 자격을 갖습니다. 대학은 특성화된 교육 목표를 세워 운영할 수 있고, 교육 프로그램의 자체 개발 및 자체 평가 시스템을 구비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대학은 졸업생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우수한 신입생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공학교육 국제 인증제는 사회 전반의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외국인 학생  
해외 파견 학생 크게 증가



2008년도 외국인 교환학생 수는 3,047명으로 2007년에 견주어 74%가 늘어나, 국내 대학 가운데 2위를 차지했습니다. 현재 경희대에서 학위 과정을 밟고 있는 외국인 학생은 2009학년 1학기에 입학할 460명을 포함하여 총 1,600여 명입니다. 2008년 해외에 파견한 학생 수는 1,210명으로 대폭 증가했는데, 이 같은 결과는 각 단과대학별로 파견 학생을 늘렸고, 국제화 전문위원회를 비롯해 다양한 영역에서 해외 파견 프로그램이 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외국인 편입학제와 조건부 입학 그리고 9월 입학제가 정착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순수 외국인 장학제도를 실시하는 한편, 해외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교류팀이 직접 중남미 및 중앙아시아를 방문하는 등 우수한 외국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해외로 파견하는 교환학생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공 특성을 살린 대규모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09학년도 1학기부터 실행할 예정이며, 동·하계 연수 프로그램 및 Faculty-led 프로그램을 확충,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외국인 지원 센터(CISS) 설립



대학의 국제화가 빠르게 진전됨에 따라 급속히 증가하는 외국인 교수와 학생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3월 서울캠퍼스 본관 3층에 외국인 지원 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Students & Scholars)를 설립했습니다.

전담 직원과 외국인 조교가 배치되어 있는 외국인 지원 센터는 순수 외국인 입시, 외국인 학생 비자, 외국인 학생 장학, 외국인 학생 기숙사, 외국인 학생 상담 등의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환경에 익숙하지 못한 외국인 학생들이 빠른 시간 안에 유학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쾌적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학사 및 생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외국인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외국인 학생들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외국인 지원 센터의 역할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 5대 정책 중점과제 '국제화 부문' 연구 시행

전통적인 '장소로서의 대학' '배타적 학문세계'의 한계를 넘어, 현실과 가상, 기초와 응용, 이론과 실천의 창조적 결합을 모색하면서, 연구·교육·실천에 있어 세계적인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는 비전과 목표,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한 경희대의 '국제화 비전 연구 프로젝트'가 시행되었습니다.

국제화는 경희대의 창학 정신을 구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경희의 역사와 전통이자 궁극 목표입니다. 경희대의 제2도약, 즉 세계적 명문 사학으로의 도약은 한 차원 높은 국제화가 실현되어야 가능합니다. 국제화 연구 보고서는 "경희대는 Academic Excellence와 Global Eminence가 조화된 국제교육을 통해 창조적 인류애를 체득한 세계 인재를 양성"하고 "사회 변화와 역사 창조를 선도하는 세계 굴지, 초유의 창의적 연구를 지향하며 학문세계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며 "교육과 연구를 통해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화합과 창조의 미래사회를 구현하는 지구적 실천에 정진"한다는 내용의 국제화 비전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희대는 인류의 보편 가치를 창조하고 실현하는 '학문과 평화의 전당'으로서 21세기 대학 발전의 세계적 패러다임을 열어나갈 것입니다.

경희대의 국제화는 '세계를 창조하는 교육' '미래를 여는 연구' '나눔과 봉사, 기여의 지구적 실천'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각각 핵심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예컨대 '세계를 창조하는 교육'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튜디오, Global Collaborative, 범경희 교양과정(Kyung Hee LUX Humanitas College System), 몰입형 기숙교육 프로그램, 한국학 특성화 프로그램 등 핵심 과제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전문지식과 보편지식이 조화되는 융합 교육, 창조적 인류애를 함양하는 세계화 교육을 통해 차이와 보편의 조화를 이끌어갈 글로벌 리더가 배출될 것입니다.

# 창조와 도약

경희정신 · 경희대 · 경희인

대학의 발전은 연구와 교육, 실천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행정과 대학문화라는 또 다른 핵심 역량이 있습니다. 대학 행정과 복지, 캠퍼스 환경 그리고 대학문화로 이루어지는 총체적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고서는 대학은 전진할 수 없습니다. 경희대는 지난 한 해 동안 대학 행정의 경쟁력 확보와 복지 수준의 향상을 위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서울과 국제캠퍼스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 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경희정신·경희대·경희인은 이처럼 소통하고 화합하며, 창조하고 도약하는 대학문화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 행정 부문 개선

### 자율운영 지원 인프라 구축



자율운영 단위의 예산 배정 원칙과 학(원)장 선임 제도를 개선하여 제도 인프라를 효율화하고, 업무 표준화 시스템 및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를 시행했습니다. 2009년부터 자율 운영 대학(원)은 자율운영 예산 배정 원칙에 따라 단위별 발전 계획 운영 예산을 편성합니다.

자율운영 단위 예산은 등록금 차등 인상분을 포함하여 등록금 수입의 일정 비율을 배정 원칙에 따라 집행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단위별 발전 계획에 의거해 사업비, 시간강사 인건비, 비정규 행정요원 인건비, 조교 인건비 등 세부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합니다.

업무 기관 프로세스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2009년에 준비 작업에 들어갈 것입니다. 발전 계획, 해외 교류 사업, 신입 교원 채용, 교원 승진 및 재임용, 기자재 구입 등 36개 업무의 이관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세부 매뉴얼을 제시할 것입니다.

대학(원) 행정 인력 구조와 운영도 개선됩니다. 자율운영 대학(원)의 행정은 학사 전담 행정요원을 신규 배치하거나 추가하고, 전문적인 행정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할 것입니다. 대학(원) 행정요원은 물론 연구와 강의·교육을 지원하는 조교의 업무 분장을 조정하고 신규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대학(원)별 자율운영과 특성화가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 대학(원) 자율운영 2009년 전면 실시

2008년 1학기부터 서울캠퍼스의 간호과학대학·경영대학·호텔관광대학과 국제캠퍼스의 토목건축대학·환경응용화학대학·국제학부가 시범적으로 시행한 자율운영이 2009년 전면적으로 실시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시범 대학은 각 대학의 발전 계획에 대한 평가를 거쳐 모두 6억 원(각 대학에 1억 원씩)에 달하는 자율운영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성공적인 자율운영은 곧 경쟁력 있는 대학 특성화 사업과 직결됩니다. 가령 간호과학대학은 교수 및 학생 수가 호텔관광대학이나 경영대학보다 적지만,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OSCE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겠다는 사업 계획이 높이 평가되어 자율운영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작년 시범 운영을 통해 노하우를 축적하고 시행착오를 개선한 결과, 2009년 3월부터 자율운영이 전체 대학(원)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자율과 책임의 운영체제는 대학(원) 및 부속 기관이 주어진 권리와 책임 아래 의사 결정을 주체적으로 수행하고, 대학본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평가, 보상하는 기본 개념 아래 추진됩니다. 자율운영 체제는 창조적인 학문 풍토와 진취적이고 민주적인 대학문화의 기반으로서 경희대가 세계적 명문 사학으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핵심 시스템입니다.

### 의료·의학계열 거버넌스 세계적 통합 시스템 지향

경희의료원, 동서신의학병원, 제3의료원 등 의료기관과 의학계열 대학 사이의 원활한 소통과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경희 의료·의학계열 거버넌스 위원회를 확대 개편했습니다.

새로운 운영 체제가 확립되면 우선, 분권화와 자율운영 체제가 강화되어 책임 있는 운영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둘째, 기존의 수직적 관리체계가 수평적으로 전환되면서 효율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의학계열의 폐쇄적 조직문화도 쇠퇴할 것입니다. 셋째, 구성단위 간 연계 기능이 활성화되어 상시적인 공조 체제가 마련될 것입니다. 넷째, 국제 및 대외 협력 연구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행정 지원 체제 역시 본궤도에 오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의학계열 전반의 중장기 발전 계획과 함께, 의료기관별 특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료·의학계열 거버넌스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며, 부위원장은 의무부총장(회의 주재), 정책·대외부총장, 재정예산부총장, 의료기관장이 맡습니다. 여기에 각 의료기관장, 대학(원)장, 각 병원장, 구성원 대표가 위원회에 참여합니다. 실무위원회는 의무부총장이 총괄하고, 그 아래 의료기관 거버넌스 기획단, 중점 연구 지원 기획단, 국제 교류 기획단, 의료 협력 기획단, 제3 의료원 기획단 등 5개 기획단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 중인 의생명과학원(가칭)에 대한 청사진도 의료·의학계열 거버넌스에서 만들어질 것입니다.

의료·의학계열 거버넌스 위원회는 임상, 연구, 교육, 실천, 행정, 대외 협력의 창의적 결합을 통해 인류 복지 및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며, 세계 굴지의 통합 의료·의학체계로 발전할 것입니다.

**평가와 보상,  
지원 체계의 합리화**

평가와 보상 그리고 지원은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본적 토대입니다. 2007년 2학기부터 개정된 직원인사평정 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사의 주관과 편견이 개입할 소지가 있는 기존의 하향식 인사 평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조직원의 자질과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상사의 평가는 물론, 부하 직원의 상향 평가, 동료 직원의 평가 등 다양한 평가 주체가 인사고과평정에 참여하는 다면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업무 실적이 뛰어나거나 학교 발전에 공헌한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하고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등 조직 활성화와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직원 표창 규정을 보완하여 2008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창의적 의견을 수렴, 행정을 능률화하고 직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직원 제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적절한 보상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직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과 보육 분야에 대한 복지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부문에서는 월 10만 원 이내 범위에서 자기계발비를 지원하고, 특수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1개 과정에 한해 등록금을 면제해줍니다. 본인이나 직계가족 중 1인이 사회교육원 강좌를 수강할 때에는 수강료의 50%를 감면해줍니다. 자녀를 출산할 경우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고, 만 6, 7세 자녀 2인에 한해 자녀 1인당 1회 보육수당을 지급합니다. 중·고생 자녀에게는 수업료와 운영회비를 지원하며, 자녀가 타 대학에 진학하면 입학축하금을 지급합니다. 2009년 3월에는 교직원들을 위한 보육시설인 '경희어린이집'을 개원, 영유아가 있는 교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52쪽 참조).

## 대학 자체 평가(O & P Review) 모델 구축



교육·연구·실천 및 경영 실태 등 대학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문제를 스스로 진단하는 대학 자체 평가(Organization & Program Review, O & P Review) 모델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 모델을 통해 상시 평가 체제를 운영하면, 문제점과 함께 해결책을 쉽게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체 평가 모델은 교육과 연구, 조직과 운영, 시설과 설비 등을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과 재정의 기초 자료를 정비하는 것은 물론 단위 부서가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 발전 역량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평가는 2단계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1단계는 주로 성과 지표를 평가하는 서면 평가이고, 2단계는 해당 대학(원) 및 부속기관의 발전 계획, 교육 목표, 교육과정, 혁신 노력 등에 대한 진단과 컨설팅으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 서면 평가에서 성과 지표 부문은 전체 평가의 80% 비중을 차지하는데, 우수한 졸업생을 얼마나 배출했는가, 학문의 미래를 선도하는 대학인가, 구성원으로부터 존경받는 대학인가, 특성화 프로그램은 얼마나 달성했는가 등의 영역에서 평가를 진행할 것입니다.

대학 자체 평가는 2007년 10월 개정된 고등교육법 제11조 2항에 의거, 각 대학이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대학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

## 구성원 데일리 메일링 서비스

대학 내 구성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교수, 직원, 주요 동문을 대상으로 경희대 및 교육 관련 기사 스크랩을 전자 메일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19개 일간지 및 기타 주요 매체에 보도된 경희대의 발전하는 모습과 구성원들이 숙지해야 할 교육 관련 기사와 함께 'Communication 21' 'Internet Future Kyung Hee' 등 교내 웹진의 업데이트 상황을 구성원의 개인 메일로 매일 전송하고 있습니다. 데일리 메일링 서비스 대상자는 교직원 3,659명, 총동문회 611명 등 모두 4,272명입니다.

2008년 3월 31일 전 교직원과 주요 동문에게 발송하기 시작한 데일리 메일링 서비스는 앞으로 재학생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단 재학생들에게는 본교 관련 기사와 주요 학사 일정 등을 공지 형태로 이원화해 전송할 것입니다.

## 5대 정책 중점과제 '전문 행정 부문' 연구 시행

대학 행정의 전문화·선진화 방안을 모색한 '전문 행정 추진 연구 보고서'가 2008년 11월 완성되었습니다. 연구 보고서는 위임 전결과 자율운영 제도를 확대해 자율과 책임의 행정을 구현해야 하며, 표준화와 효율화, 전문화 그리고 고객 지향적 운영을 통해 21세기 대학 발전의 새로운 행정 시스템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연구 보고서는 단위 부서 간 이관 업무와 유사 중복 업무를 파악해 직무를 재조정하는 것과 함께 전자결재 시스템을 도입하고, 구매·입찰·검수 제도를 개선하는 등 표준화와 효율화를 실현해나갈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전문화는 지식경영 종합 전산관리 시스템의 구축과 온라인 행정자료실 운영, 전문행정추진위원회(가칭)를 신설, 운영하면서 가시화할 것입니다. 고객 만족은 바로처리실을 확대한 '종합민원서비스센터'를 통해 구현할 것입니다.

인사제도는 채용, 전환 배치, 평가 및 보상 등의 분야에서 개선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우선 채용 분야는 채용 프로세스를 보완하고, 채용 방법과 채용 직군을 다각화할 것입니다. 신입 직원의 책임용 기간도 단축하게 될 것입니다. 전환 배치는 다양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자기 적성과 역량에 맞는 직무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인력 운용 정책입니다.

평가 및 보상 분야의 합리화는 인사고과제도의 개선과 고용직 처우 개선으로 집약되었습니다. 인사고과는 자기 신고서 양식을 보완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2차 인사고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아울러 리더십 평가서와 성과 관리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용직은 승진 체계를 도입하고, 연금 가입 등급을 현실화할 것입니다.

국내외 대학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고려할 때, 대학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훈련 체계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직급·직위·계층별 교육 훈련 체계를 수립하고 신입 직원과 비정규직에 대한 교육 훈련 체계도 특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교육과학기술부의 Best HRD 인증 평가를 준비하고 인재 개발 담당부서를 신설하는 등 교육 훈련 평가 시스템을 마련할 것입니다. 교육 훈련 체계는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유연한 사고를 유도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교육을 지향할 것입니다.

## 복지 부문 개선

### 직장 보육시설 '경희어린이집' 설립

서울캠퍼스 교직원과 대학원생의 영유아 자녀들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희어린이집'이 2009년 중으로 문을 엽니다. 지난해 10월 동대문구 회기동 60-113(KIST 방향, 구 봉평메밀)에 위치한 4층 건물을 매입하여 2009년 1월 하순,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경희어린이집은 보육실 3개, 유희실, 원장실, 교사실, 교구교재실, 주방 등으로 구성되며, 정원은 50명 규모입니다. 경희어린이집은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전문 보육교사를 확보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춰 개별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경희대 생활과학대학의 다양한 인적 자원과 연구 성과를 활용하여 여타 직장의 보육시설보다 차별화된 보육 환경을 갖추어나갈 것입니다.

경희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자, 2006년 직원 노조와 체결한 단체 협약 사항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수준의 표준 보육과정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동 중심의 교육철학에 입각해, 아동의 연령, 발달 수준, 흥미 수준에 적합한 보육과정을 수립해, 사회·정서, 언어, 인지, 신체 발달 등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 교직원 보건복지 프로그램 확대 실시

2009년 2월 1일부터 재직 교직원 및 직계가족, 퇴직 교직원 및 배우자가 부속 병원을 이용할 때 이전보다 확대된 의료비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연금법 적용을 받는 정규 교직원 본인 및 직계가족이 의료기관 교직원 감면율과 동일한 수준으로 의료비 감면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정년 퇴직자 및 20년 이상 근속 명예퇴직자 본인과 배우자도 동문 수준으로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기혼 남자 교직원은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처부모(장인, 장모)가, 기혼 여자 교직원은 배우자, 자녀, 부모, 시부모가, 미혼 남·여 교직원은 부모와 조부모가 직계가족에 포함되어 의료비를 감면받게 됩니다. 그동안 장인, 장모, 친정부모가 직계가족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2009년 2월부터는 의료비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건강검진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그동안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본인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기본 건강검진을 받았지만 2008학년도 교직원 건강검진 시기부터 건강보험공단의 기본 건강검진에 추가해 암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검진은 대장암, 간암, 췌장암, 전립선암, 난소암에 관한 암지표 검사와 위내시경, 대장암, 유방암(여), 자궁경부암(여) 검사로 이루어집니다. 기본 건강검진과 추가 검진은 경희의료원 및 동서신의학병원 산업의학과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교무위원들은 해마다 경희의료원 및 동서신의학병원 건강증진센터에서 종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5대 정책 중점과제 '복지 부문' 연구 시행

지난해 경희복지개선 추진위원회가 시행한 '경희 복지 개선 프로젝트' 연구는, 최적의 복지 환경 조성을 통해 학문과 생활공동체로서의 경희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대학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연구 보고서는 경희대의 복지 현황을 조사하고 구성원들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국내외 대학의 복지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우선, 특정 구성원 그룹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현 복지제도를 가능한 한 비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성원별 업무 특성을 고려하되 전 구성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지재단을 설치해 복지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교수들에 대한 복지제도는 대학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 장질의 건강검진 혜택 제공, 교수식당과 헬스클럽 등의 시설을 확보한 교수회관 마련, 직장 보육시설 설치, 장기 근속자에 대한 포상 강화 등을 보완해야 합니다.

직원 복지 개선 방향은 개인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 조직문화 개선, 교육 기회 확대 및 내부 인재 양성 등으로 집약되었습니다. 구성원들의 직종, 직급, 성, 학력, 연령에 따라 선호하는 복지의 종류가 크게 다르므로 개인 맞춤형 복지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령 어학과 전산 교육 등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연간 금액 한도 내에서 각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입니다.

학생 복지의 목표는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강의실, 도서관, 연구실 등의 시설을 개선하고 자발적 학습을 유도하는 세미나실 및 교육 기자재를 확보해야 합니다.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이자 지원, 식사 문제 해결, 기숙사 및 스쿨버스 운행, 각종 편의시설 확충 등 기본적인 여건을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학의 사회복지는 대학 본연의 임무와 접목되는 경우에 큰 의미를 갖습니다.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실시하는 경희의료원이나 문화적 소외계층을 위한 인문학 강좌 등이 좋은 사례입니다. 이 같은 사회봉사 활동은 실제 교육이나 연구와 연계되어야 합니다. 경희대는 사회적 실천에 대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앞으로는 사회 전반에 대한 복지보다는 노숙자, 장애인, 외국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에 집중하면서, 경희대의 사회복지 활동에 보다 큰 의미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 연구·교육 인프라

### 캠퍼스 마스터플랜

경희대가 세계적 명문 사학으로 도약하는 것과 동시에 경희캠퍼스도 새롭게 태어납니다. 캠퍼스는 대학의 이념과 목표를 상징하는 얼굴이자, 연구와 교육, 실천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생활공간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대학은 곧 세계적 수준의 캠퍼스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서울캠퍼스와 국제캠퍼스는 아름답고 쾌적한 공간 인프라를 구축하여 학문적 효율성과 대학 문화의 역동성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 1) 서울캠퍼스 : 과거와 미래의 조화

서울캠퍼스 마스터플랜은 세 가지 기본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우선 현재의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그대로 보존하여 '공원 속의 캠퍼스'를 조성하며, 둘째, 60년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캠퍼스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셋째, 이와 함께 세계와 함께하는 캠퍼스로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경희정신을 상징하는 건물들은 보존하고, 성장과 발전 의지를 담은 신축 건물을 재배치하여 '꿈의 대학'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한의과대, 간호과학대, 이과대, 문과대, 정경대 등 5개 단과대와 문화·예술시설, 복지·편의시설, 체육시설 등이 대운동장과 노천극장을 중심으로 새로 들어섭니다. 캠퍼스 내 가로 체계를 보행자 중심으로 정비하고, 약 2천 대 규모의 지하 주차장을 신설해 주차난을 해소합니다. 교문 앞 교통 혼잡 문제도 해결할 것입니다. 글로벌 타워와 게스트 하우스는 세계와 호흡하기 위해 경희대가 마련하는 공간입니다. 글로벌 타워와 게스트 하우스는 국제캠퍼스와 더불어 '국제화를 선도하는 경희'의 이미지를 한 단계 끌어올릴 것입니다. 이외에도 산학 협력을 통해 연구 중심 대학, 특성화 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한 거점인 유니버시티 센터를 신축합니다.

서울캠퍼스 전체 개발 면적은 281,279㎡(약 8만 5천 평)로 1단계에서 179,494㎡(약 5만 4천 평)를 개발합니다. 1단계 사업은 2008년 5월 경희학원으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아 민간 투자 방식(BTL)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사업 고시를 준비하고, 사업 설명회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지난해 국내 최고 수준의 경영대학 건물이 완공되었고, 현재 복지회관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규모를 확장하여 신축공사 중입니다. 새로 개원하는 법학전문대학원 기숙사 건물은 오는 7월 준공 예정입니다.

#### 2) 국제캠퍼스 : '글로벌 경희'의 랜드마크

국제캠퍼스 마스터플랜은 2007년 10월 비전 선포식을 통해 수립한 캠퍼스 3대 목표, 즉 '미래를 창조하는 교육' '풍요로운 미래를 여는 연구' '나눔과 봉사, 기여의 지구적 실천'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캠퍼스는 공간의 조직화, 친환경화, 그리고 글로벌화를 지향합니다. 먼저 중앙도서관과 사색의 광



장을 중심으로 축을 재정비하여 학문적 상징성을 강화하고 공간에 새로운 질서를 갖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 캠퍼스를 둘러싸고 있는 구릉과 기흥호수 같은 자연환경을 캠퍼스 내의 자연 요소와 연계시켜 친환경적인 캠퍼스를 창출하려 합니다. 아울러 보행 환경과 녹지 환경을 재구성합니다. 셋째, 교육시설단지, R&D 복합단지, 국제문화교류단지가 만나는 지점에 캠퍼스 코어와 커뮤니티 센터를 배치하여 산학 협력과 글로벌 실천 활동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국제문화교류단지에는 UN 평화공원을 조성합니다. 경희대의 창학 이념인 인류 평화와 공영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하는 상징적 장소가 될 UN 평화공원은, 경기도와 용인시가 추진하는 기흥호수공원 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서로 상승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제캠퍼스 마스터플랜은 4단계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발전의 기반을 다지는 1단계 사업이 추진 중으로, 제1공학관 및 종합체육관을 신축하고, 국제·경영대학관을 증축하여 교육시설단지를 완성할 것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 5월 경희학원으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아, 현재 현상 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교원 거주 시설인 I+House, 외국인 학생 전용 기숙사, 스포츠 시설 등을 민간 투자 사업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캠퍼스 마스터플랜은 앞으로 주요 시설 중점 추진(2단계), 발전된 캠퍼스의 확립(3단계), 지속적인 발전의 모색(4단계)으로 이어집니다.



## 서울과 국제캠퍼스에 '걷고 싶은 거리' 동시 조성



개교 6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서울과 국제캠퍼스가 보행자 중심의 동선(動線)을 새로 마련합니다. 서울캠퍼스는 선동호 주변 광장과 숲에서 출발해, 경희인상(像)과 선금교를 거쳐 미술대학에 이르는 숲길을 '걷고 싶은 거리'로 재정비합니다. 선동호 주변에서 미술대학에 이르는 숲길은 사계절의 변화를 즐길 수 있는 '캠퍼스의 허파' 같은 공간으로, 서울시에서 단풍이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서울캠퍼스의 '걷고 싶은 거리'는 선동호 일대의 '꿈의 공간', 벽천에서 선금교 구간의 '소통과 융합의 공간', 선금교 일대의 '사색과 창조 의 공간'으로 구성됩니다. 조형물, 임간교실, 벽천(인공시냇물) 등이 들어서고 바닥재로 개선됩니다.

국제캠퍼스의 '걷고 싶은 거리'는 교문, 외국어대, 체육대, 언덕, 경영대를 연결하는 진입로를 따라 새롭게 정비됩니다. 진입로 주변이 보행자를 위한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또한 외국어대 앞 버스 정류장과 휴게 시설을 확대하고, 공학관과 멀티미디어관 주변에 특화된 거리를 만듭니다. 교문 주변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교문 진입로 부근에 각종 정보를 한 곳에서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전광판을 설치해, 게시물과 부착물, 플래카드를 최소화하는 클린 캠퍼스를 구현할 것입니다.

개교 6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제캠퍼스의 '걷고 싶은 거리'는 국제캠퍼스 마스터플랜의 공간 구성 목표인 조직화·친환경화·글로벌화의 살아 있는 '혈관' 역할을 할 것입니다.

## '60주년 기념 광장' 조성

개교 60주년을 맞아 서울캠퍼스 교문에서 본관에 이르는 진입로와 주변 보행 공간 일대가 60주년 기념 광장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60주년 기념 광장은 서울캠퍼스 마스터플랜의 지향점과 맞물려 설계된 것으로, 세계적 명문 사학으로 도약하는 경희대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기념 공간이자, 대학 구성원들의 휴식과 사색을 위한 공원이며, 소통과 화합을 위한 광장이기도 합니다.

60주년 기념 광장 조성 사업은 교문과 의료원의 진입체계를 개선하는 것을 시작으로, 교문에서 본관에 이르는 진입로 환경을 보행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동시에, 보행 공간 안에 다양한 산책로와 광장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60주년 기념 광장은 '상상마당' '북카페' '테라피 정원' '비발디숲' 등으로 공간을 분할하고, 그 안에 친수공간, 분수, 환경 조형물 등을 설치해 자연과 조화를 이룰 것입니다.

## 학생생활지원센터(가칭) 설립

학생과 관련한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학생생활지원센터(가칭)를 설립합니다. 그동안 여러 부서에서 제공하던 학생 지원 업무를 통합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유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서비스 수혜자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 반영했고, 외국 대학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시스템을 구현 중에 있습니다. 학생 민원 부서의 편제를 개편해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포괄적인 지원 체제를 마련할 것입니다. 학생생활지원센터는 2009학년도 안으로 정상 운영될 예정입니다.



### 연구지원센터(가칭), 원스톱 방식으로 운영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대학원생 등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여, 대내외적으로 증가하는 대학의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합니다. 연구지원센터는 연구산학협력처 산하 조직으로, 기존 조직인 연구지원과·산학협력단과 유기적 관계를 맺으며 주로 학술연구 지원 업무를 담당할 것입니다.

연구지원센터는 교원과 대학원생들의 연구 애로사항을 조사하고 상담하며, 국내 및 국제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거나 게재할 때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합니다. 영문 번역과 교정 업무를 비롯해 통계 분석, 원문 복사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또한 연구방법론 세미나, 대외연구비 수주 관련 세미나, 연구자 대상 SCI급 논문 작성 및 게재 전략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연구자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연구 지원 업무는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서울과 국제 양 캠퍼스에 각각 설치할 예정입니다.

### 경영대, '오비스 홀' 시대: '세계 100대 경영대' 비전 선포



지난해 5월 준공된 경영대학관이 '오비스 홀' 이란 새 이름과 함께 세계 100대 경영대학으로 진입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경영대학관 건물 명칭은 교내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는데, 오비스(Orbis)는 원(Circle)을 뜻하는 고대 라틴어로 '지구, 세계'라는 의미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원'은 경희정신 중 하나인 '건설적인 협동'을 의미하며 '지구, 세계'는 하나 된 경희인이 '창의적인 노력'과 '진취적인 기상'을 통해 세계로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비스 홀은 지하 3층, 지상 7층에 연면적이 23,074.64㎡(6,980평)에 이르는 대형 건물로, 경영대학관, 국제회관, 학군단, 지하주차장 및 기계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영대학은 지난해 11월 1일 오비스 홀 개관식과 함께, 인류의 문화복지에 기여하는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최고의 경영대학을 지향한다는 비전과 아울러 세계 100대 경영대학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글로벌 경영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연구 역량 및 산학 협력을 강화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한 창조적 지식사회를 구현한다는 세 가지 전략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 대학문화

### ‘문화세계 창조’의 모태 창학기념관 건립

학문의 미래, 인류의 미래를 선도하는 경희대의 미래는 창학 60주년이라는 역사와 전통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창학 이념과 정신을 기리고, 지난 60년의 발자취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하여 창학기념관을 건립할 것입니다. 현재 본관 앞 신문방송국이 있는 자리에 세워지는 경희 역사의 산실 창학기념관은 교사 자료실, 박물관, 회의장, 세미나실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 자긍심·대외 이미지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



경희대 구성원의 자긍심은 어느 정도이고, 경희대의 대외 이미지는 과연 어떤 수준인가? 경희인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동시에 경희대의 대외 이미지를 끌어올리기 위하여, 한국생산성본부에 ‘Kyung Hee Spirit and Pride 프로젝트’에 대한 컨설팅을 의뢰한 결과, 의미 있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경희대에 대해 자긍심을 갖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경희대 교수와 직원, 학생 모두 “아름다운 캠퍼스”라고 답했습니다. 그 다음 요인으로 교수와 직원은 ‘핵심 가치(창학 이념, 교훈, 미래 비전 등)’, 학생들은 ‘동문’을 꼽았습니다. 특성화된 단과대학, 경희대의 대외활동, 교수진이 그 다음이었습니다.

구성원의 자긍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핵심 가치, 대학문화, 리더십, 역량, 구성원의 만족, 대외 이미지 및 위상 등 여섯 가지입니다. 이번 컨설팅 결과, 핵심 가치에 대한 경희 구성원의 인지도는 직원과 교수가 각각 73%, 71%로 나타난 반면, 학생들의 인지도는 37%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경희대의 대외 이미지는 캠퍼스 및 건물, 한의대(병원), 감성적 이미지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의 진단에 의하면, 구성원의 자긍심이 높은 조직이 지속적으로 성장합니다. 자긍심이 가장 중요한 경쟁력입니다. 이번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경희대 구성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 추진 전략을 마련할 것입니다.

### 주요 회의록 공개하는 ‘경희커뮤니케이션 21’



지난해 2월 홈페이지를 오픈한 ‘경희커뮤니케이션 21’이 대학의 주요 정책을 홍보하고 경희대의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희대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대내외 방문자들에게 경희대의 주요 정책 사안을 공유하도록 한다는 당초의 취지가 구현되고 있습니다.

교무위원회, 60주년위원회, 기획위원회, 국제교류위원회, 대학문화기획위원회, 학처장·실무처장회의, 전체구성원·대표회의, 캠퍼스 마스터플랜 등 8개 섹션으로 이루어진 ‘경희커뮤니케이션 21’은 지난 한 해 동안 모두 95개의 회의록을 올려, 대학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서 및 위원회 간 업무 효율화를 진전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경희커뮤니케이션 21’을 통해 대학의 주요 정책 사항을 폭넓고 지속적으로 공개할 것입니다.

### ‘우리의 경희! 내가 디자인한다’ 정책 제안방 신설

개편되는 홈페이지에 모든 구성원이 창의적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정책 제안방 ‘우리의 경희! 내가 디자인한다’를 신설합니다. 그동안 세 군데로 분산되어 있던 정책 제안 채널을 일원화하고, 참여 대상

자를 동문으로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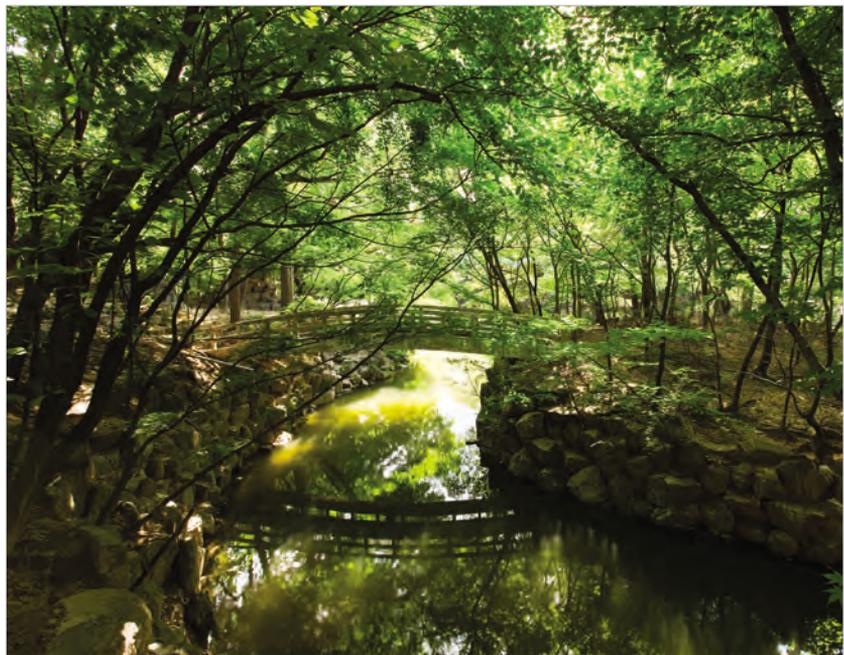
정책 제안방은 공개적으로 운영됩니다. 모든 제안은 사용자들이 볼 수 있으며, 투표와 댓글 제도를 도입해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모든 제안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에서 평가 결과를 알려주며,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만한 제안에 대해서는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정책 제안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포상은 네오르네상스상(대상), 창조상(금상), 목련상(은상), 경희가족상(동상)으로 구분하여 분기별로 시행하는데, 대상에는 총장상과 상금 250만 원, 금상에는 총장상과 상금 100만 원, 은상과 동상에는 총장상과 상금을 각각 150만 원, 100만 원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 학교 표정 바꾸는 클린 캠퍼스 캠페인

캠퍼스의 표정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현수막, 게시물, 시설물 등을 경희대 고유의 이미지로 통합(UI)하여 쾌적한 캠퍼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경희 구성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는 클린 캠퍼스 사업이 보다 확대됩니다.

2007년 8월부터 시행된 클린 캠퍼스 캠페인은 중앙로에 설치되는 플래카드의 디자인을 일체화하고, 의료기관, 사이버대, 병설교 등 대표 현수막을 감수하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클린 캠퍼스 사업은 사용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고려하면서도 자연친화적이며 학술적인 대학 공간을 만들어, 경희대만의 특징적인 캠퍼스 문화를 구현할 것입니다.



2009년 상반기에 각종 시설물을 유지·보수하는 동시에 새롭게 디자인한 각종 안내물, 안전 시설물, 위생 시설물을 설치할 것입니다. 또한 정문 중앙로에는 어떤 경우에도 플래카드를 게시하지 않도록 하여 '도심 속의 자연'이라는 캠퍼스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킬 계획입니다. 대신 서울캠퍼스 청운관 로비와 국제캠퍼스 학생식당 등에 IPTV를 설치해 각종 뉴스와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 개편  
60주년·제2도약 이미지 강화**

개교 60주년의 역사성과 세계적 명문 사학으로의 도약이라는 미래 비전을 홍보하고 공유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개편합니다. 2009년 5월 오픈 예정인 새 홈페이지는 온라인상에서 경희대의 UI(University Identity)를 정립하는 매체인 동시에, 경희대 구성원들이 수시로 방문, 일상적 활동을 펼치는 사이버 생활 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개편되는 홈페이지는 대학 홈페이지의 트렌드를 선도할 만큼, 디자인과 콘텐츠, 기능성과 웹 접근성에서 앞서갈 것입니다. 디자인은 '학문과 평화'로 상징되는 경희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학문적이면서도 예술적인 효과를 드러내는 데 비중을 둘 것입니다. 검색 엔진을 도입하고 사이트 맵 및 메뉴를 체계화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것입니다. 아울러 장애인이나 정보 소외 계층, 컴퓨터에 미숙한 방문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할 것입니다.

**경희대 UI 개편**

경희대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하고 창학 정신과 미래 비전을 상징하는 UI(University Identity)가 최종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UI 변경은 경희 60년사에 새로운 획을 긋는 중대한 사업입니다. 기존의 UI가 경희대의 창학 정신을 잘 반영해왔지만, UN 로고와 흡사하다는 지적이 있어 국제적으로 활용하는 데 많은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개교 60주년을 계기로 새로 탄생하는 경희대 UI는 지난 2007년부터 준비해왔습니다. 7개월간의 연구와 제안서 심사를 거쳐 지난해 4월 UI 제작업체를 선정했으며, 지난해 9월 교내 구성원과 교외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기존 UI와 개편될 UI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UI 3차 시안에 대한 공청회와 설문조사를 거쳐 2009년 5월, 앞으로 경희대와 함께 영원할 UI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 경희 뉴스레터, 매거진 창간



세계적 명문 사학으로 도약하는 경희의 발전상과 각종 정책의 수립과 추진 성과를 공유하며, 서로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을 준비합니다. 경희대학교 뉴스레터 'Lux Humanitas'는 2009년 3월 창간되어, 5월까지 개교 60주년과 관련된 정책과 뉴스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6월 이후에는 내용과 형식 면에서 최고 수준의 매거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Lux Humanitas'는 주요 정책을 깊이 있게 소개하는 '포커스'를 비롯해, 경희대 전 구성원으로 하여금 비전을 공유하도록 하는 '비전', 교내의 다양한 소식을 전달하는 '뉴스', 경희학원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동정을 전달하는 '경희인' 등으로 구성됩니다.

'경희매거진' (가칭)은 개교 60주년과 제2 도약기 개막의 의미와 목표, 구체적 전략을 소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소통과 화합의 문화를 일구어나가는 동력이고자 합니다. 또한 대학 발전의 비전과 목표에 대한 구성원들의 이해를 제고해 경희 특유의 학문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경희매거진은 독자를 교내 구성원과 동문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 독자들에게도 소구력을 가질 수 있도록 종합 교양지의 성격을 배제하지 않을 것입니다.

뉴스레터와 매거진은 기존 온라인 매체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구성원들에게는 자긍심과 소속감을 갖도록 하고, 대외적으로는 인류사회의 재건을 위해 보편 가치를 창출하려는 경희대의 지구적 실천을 널리 알리는 효과적인 미디어가 될 것입니다.

## 출판국에서 출판문화원으로 : 대학 브랜드화의 '컨트롤 타워'

학술 및 교양도서를 출판하는 것은 대학에 주어진 사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학문의 발전과 학문의 대중화를 선도하는 우수 도서 발간을 위한 기반을 재구축하는 한편, 대학의 디자인 체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지난해 11월 기존의 출판국을 출판문화원으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디자인 관리 체계의 재정립은 60주년을 계기로 경희대 U가 개편되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새로운 U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캠퍼스의 각종 조형물은 물론, 대학에서 발행하는 출판 및 인쇄물, 웹 사이트, 기념품에 이르기까지 디자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 세계 대학이 일관된 이미지 관리를 통해 경쟁력을 키우는 이른바 '브랜드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도 디자인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외적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출판문화원은 개편된 U를 바탕으로 각종 인쇄 양식과 웹 사이트와 관련된 시각 디자인을 비롯해, 교내 건물·조형물·시설물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환경 디자인, 소통과 화합을 위한 매체의 기획과 제작을 관장하는 공보 디자인, 대학의 위상을 제고하는 출판 디자인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가며 '경희의 브랜드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 진진하는 경희

### 2008 <중앙일보> 대학평가 경희대 10위

지난해 9월 <중앙일보>가 실시한 대학평가에서 경희대가 10위를 기록했습니다. 2007년에 견주어 교육 여건 및 재정 부문(17위), 국제화 부문(6위)에서는 순위가 올라가고, 교수 연구 부문(18위)에서는 순위를 유지한 반면 평판도 부문(10위)에서는 하락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 평가에서 지난해 12위보다 2단계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평가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국제화 부문이었습니다. 2007년 16위에서 지난해 6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경희대는 외국인 학생(교환학생)과 해외 파견 학생 비율이 타 대학보다 높았고, 그 다음이 영어 강좌 비율, 외국인 학생(학위과정) 비율, 외국인 교수 비율 등의 순이었습니다. 최근 대학 간 경쟁은 국제화 분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희대의 국제화는 다른 대학과 성격이 다릅니다. 경희대는 창학 이념에 국제화와 세계화를 명시하고, 1960년대 중반부터 국제화 관련 프로그램을 지속해왔습니다. '국제화 경희'는 경희대의 궁극 목표인 것입니다.

전국 대학평가 10위는 그동안 기획위원회 등을 통해 대학의 기반을 강화하고 주요 지표에서 대외 경쟁력을 높였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기획위원회의 평가전략 TFT가 과학적인 목표치를 설정하고,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행으로 옮겨 성과를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힘은 구성원의 소통과 열정이었습니다. 2010년 <중앙일보> 평가에서는 5위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 국가고객만족도 평가 경희대·경희의료원 나란히 3위

한국생산성본부가 실시한 2008 국가고객만족지수(NCSI) 평가에서 경희대가 종합대학교 부문 3위를 차지했습니다. 국가고객만족지수는 국가·산업·기업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생산성본부가 미국 미시간대학교와 공동 개발한 품질 경쟁력 지표입니다. NCSI 모델은 세계적 학술지의 이론적 검증을 받았으며, 미국과 유럽에서 품질 경쟁력 측정 도구로 채택될 정도로 신뢰도가 높습니다.

종합대학교 부문은 경희대를 비롯, 성균관대, 서울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고려대, 서강대, 숙명여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등 서울 시내 11개 주요 대학이 평가 대상이었는데, 위 11개 종합대 학생 2,640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 방식을 통해 교육 과정·자치 활동·교육 환경 등에 대한 포괄적 만족도를 조사했습니다. 평가 결과는 지난해 12월 17일 <조선일보>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한편 경희의료원도 NCSI 병원의료서비스업 평가에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경희의료원은 1위 삼성서울병원(76점), 2위 신촌세브란스병원(73점)에 이어 72점을 기록했습니다. 병원의료서비스업 평가 순위는 지난 2006년 이후 변동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평균 고객 만족도는 72점으로 2007년에 견주어 5점이 낮아졌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는 이와 같은 현상이, 경기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병원 이용 고객들의 심리가 크게 위축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대교협 학문 분야별 평가  
한의학·물리학·경제학  
모두 '최우수'

2008 대학교육협의회가 실시한 학문 분야별 평가에서 경희대 경제학과와 물리학과 그리고 한의과대학이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2008년도 대교협 학문 분야별 평가에서 이와 같이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은 2007년부터 체계적으로 평가에 대비해왔기 때문입니다. 교수 연구 실적, 전임교수의 봉사활동, 장학금 집행, 공간 및 시설 관리 등 연구와 교육, 실천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이번 결과는, 지난 3년간 경희대가 자체적으로 추진해온 특성화 지원 사업의 결실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대교협 평가 대상이었던 경제학과, 물리학과, 한의과대학은 모두 특성화 사업 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경희의료원, 정부 주관  
의료기관 평가에서 '우수'



경희의료원이 의료서비스 15개 전 부문에서 A등급, 임상질 지표 3개 전 부문에서 A등급을 받아, 보건복지가족부가 주관한 2007 의료기관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조사는 2007년 10월에 실시되었고, 평가 결과는 2008년 5월에 발표되었습니다)

국내 500개 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86개소(종합전문요양기관 43개소 포함)를 대상으로 4개 영역, 21개 부문에 걸쳐 평가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2004년에 평가를 받은 종합병원이 2007년에 다시 평가를 받은 결과 '진료 및 운영 체계' 등 의료서비스 영역 15개 부문의 평균 점수가 17점이나 올라가, 의료서비스 수준이 지난 3년간 빠른 속도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년 전에는 3개 영역에서 모두 우수한 기관이 전무했으나, 2007년에는 35개소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이번 평가에서 임상질 지표 영역을 새로 도입한 데다, 지난 3년간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서비스 개선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라고 보건복지가족부는 분석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진료 및 운영 체계 등 의료서비스와, 진료의 수준을 의미하는 임상질 지표, 그리고 환자 만족도 등 3개 부문에서 모두 '우수' 하다고 인정받은 병원은 경희의료원을 비롯해,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영동세브란스병원, 전북대병원, 포천중문대 분당차병원 등 모두 10곳이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경희의료원은 의료서비스와 임상질 평가 전 부문에서 A등급을 받았으나 외래 및 입원 환자 만족도에서 B등급을 받아 종합평가 순위에서 5위에 머물렀습니다. 앞으로 의료·의학계열 거버넌스 위원회가 본격 운영되고 환자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한다면, 3위권 안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희대 교수진  
활발한 학술 활동

지난해에도 경희대 교수들의 학술 활동은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펼쳐졌습니다. 암예방보재개발연구소 터 소장 김성훈 교수가 2008년 11월 21일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의약학부 정회원에 선출되었습니다. 과학기술한림원은 국내외에서 학문적 우월성을 인정받는 세계적 석학들을 회원으로 엄선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2008년도 의약학 부문 심사는 10:1 이상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정회원으로 3명



이 선정되었습니다.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서영록 교수가 40여 년의 전통을 갖고 있는 권위 있는 국제 저널 〈Mutation Research〉의 편집위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Mutation Research〉는 발암 및 돌연변이, 유전자 손상과 관련된 연구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 교수는 2003, 2005년 미국암연구학회 등 권위 있는 세계학술대회에서 '젊은 과학자상'을 수상하고, 최근 5년간 10여 차례 국제학술대회에 초청 강연자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경희대 노인성뇌질환연구소 진병관 교수와 공학연구센터 김정태 교수가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선정하는 우수 연구집단 육성사업의 신규 센터로 선정되었습니다. 뛰어난 연구 인력을 특정 분야별로 체계화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과학자 군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선정된 연구단체는 앞으로 7년간 90억 원 규모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노인성뇌질환연구소 진병관 교수팀은 파킨슨씨 병, 척수 손상, 치매 등의 치료법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공학연구센터 김정태 교수팀은 '지속 가능한 건강 건축 기술', 즉 인간의 건강에 기여하는 실내 건축 환경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리학 분야에서 실험이 아닌 이론에 몰두하고 있는 이과대학 구현주 교수는 지난해 '젊은 물리학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상은 대한화학회가 물리학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업적을 발표한 45세 미만의 젊은 회원에게 연구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수여하고 있습니다. 계산화학을 통한 자성(磁性) 연구에 집중해온 구 교수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22편에 달하는 관련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구 교수는 앞으로 자성과 다른 전기적 성질인 강유전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영대학 이경전 교수는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전정호 씨와 함께 지난해 11월 '모바일 RFID 기반의 라이프로그 시스템 설계'라는 주제로 제4회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USN(Ubiquitous Sensor Network) 연구논문 공모전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이경전 교수 연구실은 유비쿼터스 기술 중에서도 모바일 RFID 분야를 심층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RFID 기술은 각각의 물품에 고유 태그를 부여해 바코드의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 무인경비시스템 등에 응용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RFID는 개인단말기에 RFID 리더기를 부착해 운영되는데, 예컨대 미니 홈페이지 블로그에 사진을 올리는 과정이 훨씬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이 교수 연구실은 RFID 기술로 인하여 나타날 생활의 변화를 측정하는 연구와 관련 특허 출원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음악대학은 지난해 11월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지휘자 박승 교수를 석좌교수로 초빙, 음대의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초석을 놓았습니다. 박 교수는 경희대 음대에 입학했으나 재학 중 미국으로 유학, 졸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뉴욕 메네스음악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박 교수는 상임 지휘자로 있던 오스틴 심포니를 미국 내 최고 오케스트라로 끌어올려 세계 무대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박 교수는 지금도 서울시립교향악단, KBS교향악단 등 국내는 물론 일본, 프랑스, 스페인 등 세계의 유수 교향악단과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뛰어난 직감력, 생명력이 깃든 장엄한 지휘로 정평이 나 있는 박 교수는 지휘과를 만들어 후진 양성에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7개 연구소 학술지  
학진 등재 후보지 선정



경희대 부설 연구소(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교원의 연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부설 연구소(원) 육성 사업을 벌인 결과, 비교문화연구소의 <비교문화연구> 등 3개 저널이 지난해 학술진흥재단(학진) 등재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2009년 2월 현재 경희대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가운데 학진 등재 후보지에 올라 있는 학술지는 <비교문화연구>를 비롯해 <언어연구>, <아태연구>, <경희법학>, <Oriental Pharmacy and Experimental Medicine>, <사회과학연구>, <오토피아OUGHTOPIA> 등 모두 7종입니다. 2008년도 학진 학술지 목록을 살펴보면, 서울대가 총 27종(등재지 17, 등재후보지 10)으로 가장 많고, 한국외국어대가 18종(등재 12, 등재후보 6)으로 2위, 고려대가 12종(등재 6, 등재후보 6)으로 3위입니다. 경희대는 모두 7종으로 6위인데, 학진 등재지는 1종도 없는 상황입니다.

연구산학협력처에서는 등재 학술지 육성 사업을 공모 형식을 통해 전개하고 있는데, 지난해 한의학연구소를 포함한 4개 연구소가 계속 지원을 받았으며, 언어연구소·동서간호연구소 등 4개 연구소가 신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의학계열 연구자 특별지원사업  
“앞으로 논문 100편 나와”

경희대 의학계열의 국제 학술지 논문 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7년부터 3년간 총 30억 원을 지원하는 의학계열 신진연구자 특별 지원 사업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초·임상 협력 연구와 임상 연구 분야에서 1차년도에 51과제가 선정되었고, 2차년도인 지난해에는 모두 57과제가 신청하여 이 중 45개 과제가 심사를 통과해 지원 혜택을 받았습니다.





신진연구자 특별 지원 사업에 선정된 과제들은 임상환자들의 증례에 기초한 임상연구와 임상질환의 진단 그리고 치료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연구 등 크게 세 분야로 나뉩니다. 선정된 과제 연구에는 임상 교원들과 함께 기초과학 전공 교원들이 다수 참여함으로써, 임상과 기초과학 사이의 협력 연구를 이끌어내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임상 교원들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연구는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신진연구자 특별 지원 사업이 처음으로, 임상 연구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은 물론 임상 교원 개인의 연구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2009년 종료되는 신진연구자 특별 지원 사업은 앞으로 수년 안에 발표될 100편 이상의 논문으로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 대외 연구비 수주 확대

대외 연구비를 수주하는 연구과제가 크게 늘어났고, 이에 따라 대외 연구 장려금 규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72개 과제가 총 706억 8천만 원에 달하는 연구비를 수주했습니다. 캠퍼스별로 살펴보면, 서울캠퍼스에서는 진병관 교수가 '신경퇴화제어연구센터' 과제로 연구비 65억 원을 받는 등 모두 659개 과제에 385억 8천만 원을 수주했습니다. 국제캠퍼스에서는 이동훈 교수의 '달 케도 탐사' 과제가 WCU 1 유형에 선정되어 140억 원을 받는 등 513개 과제에 32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선희 교수 외 222개 과제의 연구책임자, 간호과학대 외 19개 단과대, 경영연구원 등 33개 연구소(원)가 모두 3억 9천7백여만 원의 장려금(성과급)을 지급받았습니다.

연구산학협력처는 대외 연구비 수주에 따른 성과급 지급을 확대하는 것 외에도 대외 연구비 수주 실적에 높은 연구자(단체)에게 연구 공간 및 인력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외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국가연구 개발사업 신청에 필요한 준비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예체능계열 교수의 공연·전시 등 외부 지원비를 연구비로 관리하는 등 예체능 계열의 연구비 관련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올해 연구지원센터가 본격 운영되면 대외 연구비 수주가 보다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경희대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설립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사업화하여 보다 나은 기술을 개발하고, 이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모델이 기술지주회사입니다. 기술지주회사는 지난해 2월 4일부터 발효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의거,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술지주회사는 기술이나 현금 또는 현물을 출자하는 대학(산학협력단)이 단독 혹은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여러 개의 자회사를 통해 사업을 전개하는 하는 구조입니다. 민간 투자기관은 기술지주회사나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경희대는 현재 서울캠퍼스와 국제캠퍼스에서 각각 두 개의 자회사, 즉 경희한방제약주식회사(가칭)와 경희바이오주식회사(가칭)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WCU 사업에 5개 과제 선정



빠어난 연구 역량을 가진 교수 한 명이 미래 정부의 원천을 창출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분야의 연구를 추진하고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여, 기초과학의 새로운 전공 분야와 지식기반 서비스 및 신산업을 창출하는 기반 분야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세계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World Class University, WCU) 육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WCU 육성 사업 대상 분야는 크게 신성장 동력 창출과 사회 발전 및 학문의 성장을 선도하는 새로운 분야로 나뉩니다. NBIC(Nano Bio Info Congo) 융합 기술, 와해성 기술, 돌파형 기술, 에너지 과학, 인지과학, 우주 국방 등이 신성장 동력 분야의 좋은 예입니다. 기초과학 및 인문사회 분야에서도 국가·사회 발전과 학문의 성장을 선도하는 새로운 융복합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경희대에서는 총 5개 과제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전공·학과 개설 지원 과제(유형1) 분야에서 이 동훈 교수의 '우주 탐사'가 선정되었고, 세계적 석학을 비전일제 교수로 초빙해 활용하는 과제(유형3)에서는 김영동 교수의 '나노구조체의 비파괴 분석법 개발', 육순형 교수의 '복잡계 네트워크의 이론적 연구: 세포에서 사회현상까지', 전종성 교수의 '친환경 다수확 신초형 벼 개발', 김동현 교수의 'GSK3 $\beta$  활성화 항바이러스 천연물 신약 개발 기술'이 선정되었습니다. 유형3 분야에 선정된 이들 4개 과제 중 3개 과제는 5년간 2억 원씩 30억 원, 나머지 1개 과제는 3년간 2억 원씩 6억 원 등 모두 36억 원의 지원을 받습니다. 유형1 분야의 경우는 5년간 110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난해 12월 최종 선정된 WCU사업은 지방대 4개 대학을 포함해 모두 18개 대학 52개 과제였습니다.

## 발전기금 모금 활성화 도약 기반 마련

2009년 개교 60주년을 맞이하여 대외협력처와 총동문회가 공동 진행하는 발전기금 모금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영대학 모금 릴레이, 한의대 신축건물 모금 캠페인, 중앙도서관 학문사랑 모금 캠페인,故 이성호 교수 추모기금 모금 등 단과대학과 부서 차원의 모금 활동이 왕성하게 전개되어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모금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지난해 발전기금은 약정액으로 261억 원, 입금액으로 185억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특히, 서희그룹 이봉관 회장이 Global Eminence BK 기금과 BK 장학금으로 150억 원의 거액을 약정해주셨으며, 이외에도 자생한방병원장 신준식 동문이 한의과대학 건축기금으로 3억 원, 씨티그룹이 NGO인턴십 프로그램 기금으로 2억 3천만 원, 한국전력공사가 생명과학대 기금으로 2억 원, (주)MDM 대표 문주현 동문이 경영대학 기금으로 2억 원, 동화약품(주) 회장 윤도준 동문이 의과대학 장학기금으로 2억 원 등 많은 분들이 거액의 발전기금을 기부해주셨습니다.

2009년은 지금까지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해가 될 것입니다. 개교 60주년을 계기로 다양한 모금 캠페인을 전개해 발전기금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세계적인 명문 사학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총동문회, 장학금  
8천4백만 원 지급**

1999년 개교 50주년을 계기로 재단법인 경희대학교 총동문장학회를 설립한 이래, 총동문회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장학기금을 확보하고, 학술연구 및 문화 발전 사업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2008학년도 1학기에 학부생 14명, 대학원생 3명 등 모두 17명, 2학기에는 학부생 19명, 대학원생 3명 등 모두 22명에게 총 8천4백만 원의 총동문회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동문회보 발행, 홈페이지 운영, 동문 주소록 발행, 동문 ID카드 발행 등 회원을 관리하는 상시 업무와 경희인상 시상, 경희인의 밤, 간담회, 총동문등산대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총동문회는 지난해 모교 발전기금 모금 캠페인을 주도하는 등 개교 60주년 행사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UNESCO 사무총장  
명예박사 학위 수여**



고이치로 마쓰우라 유네스코 사무총장에 대한 철학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이 2008년 7월 22일 평화의 전당에서 거행되었습니다. 1937년 일본에서 태어난 마쓰우라 사무총장은 동경대 법대 교수와 미국 하버포드대 경제학 교수를 역임하고, 196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일본 외무성에서 근무했습니다. 1999년 유네스코와 인연을 맺은 이래 총재를 거쳐 현재 사무총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마쓰우라 사무총장은 세계 평화와 공영을 위해 자유와 인권, 정의를 증진시켜왔으며, 정의의 교육과 과학 그리고 문화를 통해 세계적 협력을 이끌어온 탁월한 지도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적 번영과 세계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해 '세계 문화유산' 제도를 창설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마쓰우라 사무총장의 저서로는 《21세기의 도전에 대한 대응》, 《새로운 유네스코 건설을 위하여》, 《미·일 관계의 역사》 등이 있습니다.

**세계적 인명사전에  
경희대 교수 7명 등재**



영국 국제인명센터(IBC), 미국 인명정보기관(ABI)과 함께 세계 3대 인명사전으로 꼽히는 《MARQUIS Who's Who》(2008~2009년 판)에 경희대 교수 7명이 등재되었습니다. 한의대 엄재영 교수를 비롯해, 동서신의학병원의 이종민·박동석 교수, 전자전파공학 전공 박종국 교수, 의과대 원장원·최원재 교수, 법대 소재선 교수 등이 그 주인공입니다. 한편 한의대 김성훈 교수는 《Who's Who in America》에 등재되었습니다.

엄재영 교수는 질병에 대해 개인의 유전자가 나타내는 민감도의 차이를 밝히는 약리유전체학을 한의학에 접목시키는 새로운 연구에 전념하고 있는데, 미국 국립의학도서관 논문 사이트 '펍 메드'에 등록되어 있는 엄 교수의 논문은 73편에 달합니다. 그중 29편이 엄 교수의 주도로 완성된 것입니다. 동서신의학병원 이종민 교수는 2007년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개최된 제74차 부인종양연구회에서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자궁경부암에 대한 다기관 임상시험을 제한한 바 있으며, 대한부인종양포스코피학회, 대한부인종양연구회, 국제부인종양학회 등에서 발표를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종양과 관련된 다수의 SCI 저널에서 논문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서신의학병원 한방병원장 박동석 교수는 신경병증성 모델을 이용한 침 치료 진통효과에 대한 연구 논

문과 CIA모델을 이용한 봉침 연구 논문을 비롯해 그동안 수십 편의 논문을 SCI 저널에 게재했으며, 국내 학술지에도 150편의 논문을 실는 등 침구학을 선도해왔습니다. 박 교수는 현재 골 관절 질환을 연구하고 있는데, 그간 국내외에 17개의 특허를 등록했으며, 침과 봉독의 진통효과와 기전을 밝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현재 골 관절질환 치료제 개발 연구팀을 이끌고 있는 박 교수는, 기존의 관절질환 치료제보다 치료 효과는 더 높고 부작용은 적은 '한방신약'을 개발하는 것이 궁극 목표입니다.

대학 시절부터 암 치료와 예방을 DNA 차원에서 연구해온 의과대 생화학 분자생물학 교실 최원재 교수는 미국에서 하워드 휴즈 의학연구소와 미국 국립보건원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만큼 암 연구자로서 진면목을 발휘했습니다. 2005년 경희대로 부임한 최 교수는 2007년 한국과학기술원 40세 미만의 젊은 기초의학 교수에게 수여하는 '젊은 기초의학자 학술상'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최 교수는 지난해 같은 교실 김성수 교수와 함께 항생제 내성을 줄이는 신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경희의료원 가정의학과 원장원 교수는 대한노인병학회 홍보이사, 대한보완대체의학회 학술이사 등을 맡고 있으며, 미국 워싱턴주립대 노인내과 방문교수로 있으면서 2~3편의 논문을 국제 학술지에 발표하는 등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전자정보대학 전자전파공학 전공 박종국 교수는 《MARQUIS Who's Who》 25주년 기념판에 등재되었습니다. 박 교수는 지금까지 200편이 넘는 논문을 발표했고, 세계적인 학술대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의 편집위원을 맡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독일 뮌헨 사법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소재선 교수는 임대인 보호법을 연구하면서 국내 민법 발전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했습니다. 또한 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 민사법학회 부위원장을 맡는 등 민사법 관련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130여 편에 달하는 재산법과 가정법 관련 논문을 발표하고 10권의 저서와 10여 권의 공저를 펴낸 소재선 교수는 경희대 로스쿨을 한국 최고의 로스쿨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법을 통해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 정경대 정한나 양 학부 졸업생 최초로 UN 정식 채용



2008년 2월, 정경대 정치외교학부를 졸업한 정한나 양이 학부 졸업생 최초로 UN 사무국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어 2008년 9월부터 공보국 산하 전략커뮤니케이션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 양은 재학 중 대학에서 제공한 UN과 NGO 인턴십 프로그램이 큰 도움이 되었다며, UN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정식 직원이 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석·박사 경력 없이 경력 직원으로는 지원 자격이 안 돼, UN본부에서 주관하는 두 가지 시험(ASAT, NCRE)에 합격하고 인터뷰를 통과한 것입니다.

정 양은 국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UN에서 일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끝까지 도전하면 길이 열린다"고 말했습니다. 경력을 더 쌓은 뒤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다는 정 양



은 앞으로 전문 직원이 되면,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는 국제 협상 전문가가 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치의학·의학전문대학원  
간호과학대, 국가시험 100% 합격**

2005년 나란히 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한 치의학전문대학원과 의학전문대학원이 2009년 치과 의사 및 의사 국가시험에서 재학생 100%가 합격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72명, 의학전문대학원에서 46명이 지원해 모두 합격한 것입니다. 간호과학대학도 2009년 제49회 간호사 국가시험에 103명이 응시해 전원 합격했습니다.

경희대 치의학전문대학원과 의학전문대학원은 인류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며,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치의학전문대학원은 치과 의료에 필요한 기초적인 전문지식과 임상교육을 강화하고 연구 의욕을 고취시켜, 치과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사회에 봉사하는 지도자적인 인생관을 지니게 하는 동시에, 국제 감각을 갖춘 차별화된 치과 의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은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에 대한 조화로운 이해를 통해 동서의학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삼고, 1차 진료의사로서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며, 의사로서 필요한 태도와 자세 그리고 직업적 윤리관을 확립하는 데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치의학전문대학원과 의학전문대학원은 통합과목, 문제 중심의 자주적 학습, 팀 티칭, 멘토링 제도, 전문 도서관 등으로 구성된 선진적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경희의료원·동서신의학병원 등의 임상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면서 21세기 신 의학을 주도하는 교육과 연구 체제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간호과학대학은 간호 대상자를 신체, 정신, 사회문화, 영적인 통합체로 이해하는 전인 간호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는 간호과학적 지식과 기술뿐 아니라 윤리적·법적으로도 확고한 직업관을 갖추어야 합니다. 간호과학대학은 간호 현장에서 의사 소통과 관계를 현실화하고 한방 간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한국적 간호를 정착시키는 동시에, 복지사회가 요구하는 섬김의 리더십을 갖춘 전문 간호인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태권도 금메달  
체육부 맹활약**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여자태권도 57kg급에서 임수정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거는 등 경희대 체육부가 지난해에도 각종 대회에서 맹활약하면서 '경희'의 이름을 국내외에 알렸습니다. 한국 현대체육을 이끌어온 경희대 체육부에는 현재 축구와 야구, 농구를 비롯해 배구, 핸드볼, 체조, 배드민턴, 태권도, 골프, 양궁, 럭비, 필드하키, 아이스하키, 사격, 쇼트트랙, 세팍타크로, 육상 등의 종목에서 350여 명의 선수들이 강도 높은 훈련을 계속하며 국내 및 국제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희대 체육부는 임수정의 여자 태권도 올림픽 금메달 이외에도 값진 기록 행진을 펼쳤습니다. 먼저, 김광진 감독이 이끄는 축구부가 지난해 대학 축구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저학년(1~2학년) 대

회, 전국체전, U리그에서 우승한 것입니다. 또한 '제2의 홍명보'를 꿈꾸는 이호 선수가 대학 축구 U리그 시상식에서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었고, 박상진·정성운 선수가 각각 수비상과 GK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해 베이징 올림픽에 참가했던 김근환 선수는 2009년 졸업과 동시에 일본 요코하마 마리노스에 입단, '골 넣는 수비수'라는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의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농구부는 지난해 12월 2008년 농구대잔치에서 아마농구 최다 기록인 52연승을 달리던 중앙대를 격파했습니다. 중앙대의 53연승을 저지한 숨은 주역은 경희대의 장거리 슈터 이승현 선수였습니다. 2007년부터 확고한 주전으로 나선 이승현 선수는 화려한 플레이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해 팀의 승리에 기여하는 선수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경희대 야구부의 활약도 눈부셨습니다. 지난해 4월 전국대학야구 춘계대회에서 정상을 차지한 데 이어, 이 대회에서 최우수선수로 뽑힌 박현준 투수가 지난해 7월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제4회 세계대학 야구선수권대회에서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차세대 사이트 암 에이스'인

박현준 투수는 대만전에서 역투해한국의 4강 진출을 이끌었습니다.

2007년 원광대전에서 노히트노런을 기록한 바 있는 박현준 투수는 '제2의 임창용'을 꿈꾸고 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에서 한국 태권도의 금메달 물꼬를 튼 임수정 선수는 모교에 발전기금을 기부했습니다. 임수정 선수는 지난해 9월 올림픽 태권도 선수단을 격려하는 만찬 자리에서 "모교로부터 받은 과분한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었다"며 자신을 지도한 김봉근 감독과 함께 각 1천만 원씩, 총 2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임수정 선수는 앞으로 대학원에 진학해 체육 지도자의 길을 걸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 사자와 목련

## 총장 365일

기간 : 2008.1.1(화) - 2008.12.31(수)

### 공식 일정 (총 710회)

공식·비공식 회의 : 178회

교무위원회, 부총장회의, 기획위원회  
각 단과대학 및 대학원, 부속기관 간담회  
각 부서장 및 부서 공식 업무 보고  
대학 구성원 대표 간담회

면담 : 305회

부총장/대학원장 및 단과대학장/실무 부서장 등 교내 구성원 면담

행사 : 127회

교내·외 공식행사, 오찬, 만찬  
총동문회 관련 행사



2008년도 학위수여식



서희그룹 이봉관 회장 기부약정식



유네스코 사무총장 명예 학위수여식

교외 인사 접견 : 78회

정·관·재·학계 인사

국내·외 자매교 인사

총동문회 인사

UN, CONGO 등 해외 교류협력기관 인사 및 외교 사절

각종 기부 협약 체결 관련 인사

언론 인터뷰 : 8회

〈대학주보〉 등 교내 언론매체

〈한국일보〉, 〈중앙일보〉, 〈뉴스위크〉

해외 출장 : 1회

출장 사유: World Civic Forum 출범 기념식 개최

출장지: 미국 뉴욕

출장 기간: 2008. 4. 8~4. 15 (9박 10일)

주요 활동 내용

- 1) UN DESA와 공동으로 WCF 출범 기념식 개최(주UN 한국대표부)
- 2) 반기문 UN 사무총장, Sha Zukang 사무차장, 김현중 주UN 한국대표부 대사 등 UN 관계자 면담
- 3) 미국 주재 경희대 총동문회 회원 간담회 개최



베이징 올림픽 선수단



Peace BAR Festival



시민인문학 강좌

# 통계로 본 경희 2008

## 주요 지표 (서울·국제캠퍼스, 의료기관)

2008. 10. 1 기준

### 1. 예산 규모

단위: 억 원

구분	2006. 2. 28	2007. 3. 1
서울캠퍼스 교비회계	2,270	2,586
국제캠퍼스 교비회계	1,558	1,613
산협단체회계(서울/국제 통합공시)	913	950
경희의료원	2,542	2,603
동서신의학병원	1,291	1,419

\* 2007: 결산 기준  
2008: 예산 기준

### 2. 교원 및 교직원 현황

#### 교원 현황

단위: 명

구분	서울	국제	계	
전임교원	교수	381	208	587
	부교수	156	74	230
	조교수	191	106	297
	전임강사	68	28	96
<b>총 교원수</b>	<b>796</b>	<b>416</b>	<b>1,212</b>	

#### 대학 직원 현황

단위: 명

구분	서울	국제	계
사무직	182	154	336
기술직	19	26	45
기능직	67	52	119
연구직	5	2	7
고용직	3	2	5
<b>총 직원수</b>	<b>276</b>	<b>236</b>	<b>512</b>

### 의료기관 직원 현황

단위: 명

구분	경희의료원	동서신의학병원
사무직	175	99
간호직	712	482
약무직	35	30
의료기사직	218	160
연구직	12	6
기능직	545	7
임상계약직교원	58	53
전공의	547	110
기타	17	23
<b>총계</b>	<b>2,319</b>	<b>970</b>

\* 계약직 포함 인력이며, 아웃소싱 인력은 제외

\* 기타 직종에는 아르바이트, 정규직 대체인력 포함

### 3. 학생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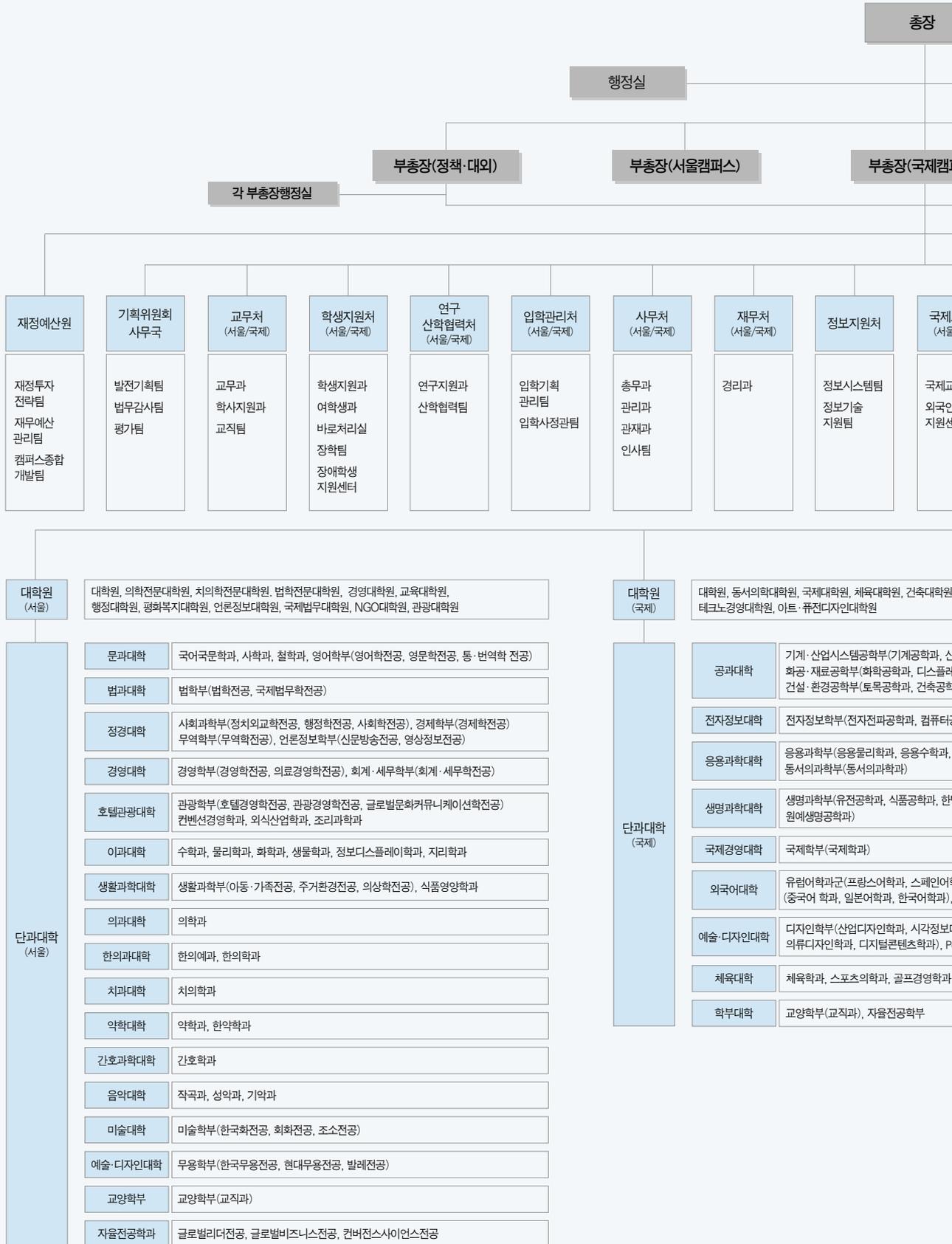
구분	서울	국제	계
학부	11,680	11,047	22,727
대학원(전문, 특수 포함)	5,814	644	6,458
<b>총 학생수</b>	<b>17,494</b>	<b>11,691</b>	<b>29,185</b>

### 4. 취업률

구분	취업률
서울	81.8%(정규직 : 58.9%)
국제	82.7%(정규직 : 57.3%)

\* 교육인적자원부 발표 기준

# 경희대학교 조직도







Small, illegible text at the bottom of the page, possibly a footer or page number.

## **목련리포트**

**2009 경희대학교 연례보고서**

**발행인** 경희대학교

**편집인** 목련리포트 편집위원회

**디자인** (주)끄레 어소시에이츠

**인쇄** 문성인쇄

**발행일** 2009년 5월 20일

**발행처**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대표전화** 02)961-0106~8

**이메일** [press@khu.ac.kr](mailto:press@khu.ac.kr)

©경희대학교, 2009

ISSN 2005-7539

